

M 45-98 | 2008. 10 |

제 98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08. 10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명기 전문연구원 mkleee@krei.re.kr TEL 02-3299-4166 / FAX 02-968-7340
김연수 연구원 yunsoo@krei.re.kr TEL 02-3299-4307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 3 2008년 미국 고용농업인 현황
- 13 농업부문 교차준수 적용사례와 시사점

국제기구 동향

- 27 DDA, 2008년 10월 농업협상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37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10)
- 43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10)
- 55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10)
- 69 세계 경제 전망 2008~2009

세계 농업 브리핑

- 81 세계 농업 브리핑 (2008.10)

세계농업통계

- 95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 97 세계 닭고기 통계



농업·농정 동향

2008년 미국 고용농업인 현황
농업부문 교차준수 적용사례와 시사점

2008년 미국 고용농업인 현황*

채 광 석

1. 머리말

고용 농업인은 미국 전체 농업노동력의 1/3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과일 및 채소 등의 노동 집약적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노동 집약적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규모화된 농장으로 인해 과거 10년에 비해 고용 농업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특정시기에 주로 생산이 이루어 지던 방식에서 연중생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고용농업인들이 항구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용농업인은 미국 전체 농업노동력의 1/3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과일 및 채소 등의 노동 집약적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노동 집약적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규모화된 농장으로 인해 과거 10년에 비해 고용 농업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또한 특정시기에 주로 생산이 이루어 지던 방식에서 연중생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고용농업인들이 항구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미국 농업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첫째, 고용농업인은 농업생산 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¹⁾
- 둘째, 약 절반 정도의 고용농업인은 미국 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들의 고용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편이다.
- 셋째, 고용농업인은 전반적으로 주거 및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이와 같이 고용농업인은 다른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른 직업그룹은 점점 작업환경 안전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아직도 미국 내에서 가장 위험한 노동환경 중 하나로 남아있기

* 본 내용은 미 농무부의 'Profile of Hired Farmworkers, a 2008 Update'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전문 연구원이 발췌 번역한 것이다. (gschae@krei.re.kr, 02-3299-4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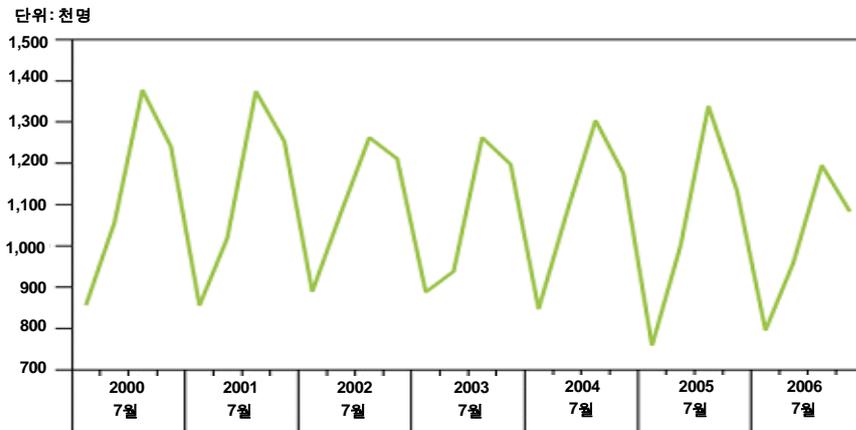
1) 조사에 따르면 고용농업인의 12%가 이에 해당한다.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용농업인은 고된 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뿐만 아니라 살충제와 같은 농약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까지 고려해야 한다.

2. 고용농업인의 변화

2006년 기준으로 고용농업인은 농업부문 전체 종사자 가운데 약 1/3인 101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5만 명은 농업경영주와 가족농업인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고용농업인의 101만 명이란 숫자는 조사시점이나 조사기관마다 달라진다.²⁾ 이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농업노동 수요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고용농업인의 숫자가 시기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1 시기별 고용농업인 변화



자료: Farm Labor Survey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SDA, 2000~2006.

3. 농업구조와 인력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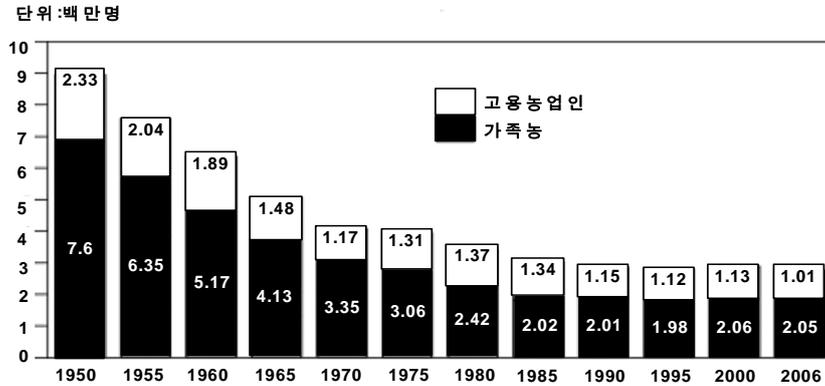
고용농업인에 대한 수요는 농업 생산의 구조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식품 소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노동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농업 생산은 소수 대농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농업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950년과 2002년 사이에 평균 농업생산 규모가 216에이커에서 444에이커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동기간 농가 수는 5.5백만 가구에서 2.1백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연 평균 농산물판매금액이 25만 달러 이

고용 농업인에 대한 수요는 농업 생산의 구조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식품 소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2) 2005년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에서는 고용농업인이 72만 9천명이라고 발표하였지만, 2006년 NASS에서는 100만 9천명, 그리고 Martin(2006)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1.4백만 정도 된다고 추정하였다.

하인 소농은 전체 농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미만이다.

그림 2 전체 농업종사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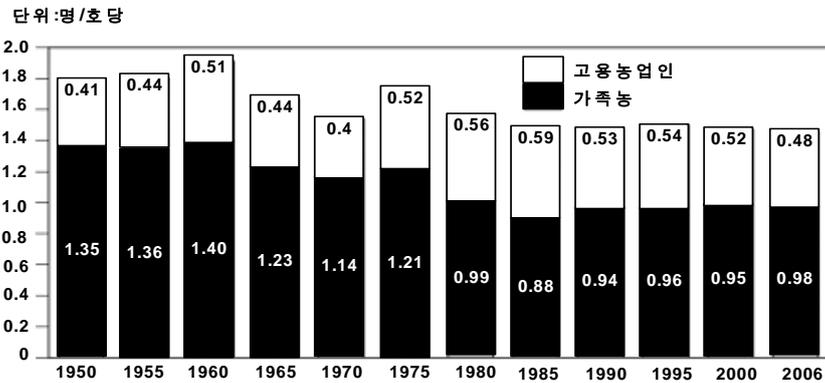


자료: Farm Labor Survey,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SDA.

농업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약 200만 명의 가족농과 약 100만 명의 고용농업인만 남아있게 되었다.

농업 종사자의 감소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농업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에 233만 명의 고용농업인을 포함하여 약 1천만 명 정도가 농업생산에 종사하였지만, 이후 농업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약 200만 명의 가족농업인과 약 100만 명의 고용농업인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총 근로자 중에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이 1950년에 12.5%에서 2006년에 1.5%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3 호당 평균 농업종사자수 변화



자료: Farm Labor Survey,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SDA.

전체 농업종사자는 195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1985년 이후 감소세가 완만해졌다. 1950년부터 2006년까지의 농업노동조사(Farm labor survey, FLS)에 따르면, 호당 평균 가족농업인은 1950년 1.35명에서 2006년 0.98명으로 27% 감소하였지만, 호당 평균 고용농업인 수는 1950년 0.41명에서 1985년 0.59명으로 증가했다가 2006년에 0.48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농업종사자에서 고용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25%에서 2006년 약 33%로 증가하였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인해 농업부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자 멕시코와 1942년 Bracero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1942년부터 1964년까지 22년간 지속되다가 중단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멕시코로부터의 이주농업인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농장에서 계약기간동안 일하고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던 1956년 무렵에는 연간 약 50만 명이 미국의 농업부문에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미등록 이민자(불법 체류자)문제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인력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 노조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1964년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Bracero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1980년까지 미국으로의 미등록 이주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후 점차 늘어나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 의회와 정부는 1986년 ‘이민개혁과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IRCA))’을 제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임을 알고도 고용한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100만 명 이상의 미등록 체류자를 등록 이주노동자로 전환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농업부문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되자 멕시코와 Bracero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미등록 이민자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업인력 수요의 감소에 따라 1964년 폐지했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고용농업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 내 다른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 고용농업인의 평균적인 특징으로는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거나 미등록 이주민인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 해외 이주에 대한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농촌지역의 거주 비율이 낮다. 이로 인해 고용농업인의 대부분이 남성이며 성비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자료에 의하면 고용농업인의 약 20% 정도만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은 물리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젊은 경향이 있다. 나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구간에서 고용농업인이 많았으며 고용농업인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치이다.

표 1 고용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비교

단위: %

농업노동은 물리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으며 고용농업인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고용농업인			일반 근로자		
	비시민권	시민권	전체	비시민권	시민권	전체
전체평균	37.6	62.4	100.0	9.2	90.8	100.0
성별비율						
남	82.7	79.9	80.9	63.6	50.7	52.1
여	17.3	20.1	19.1	36.4	49.3	47.9
평균연령(세)	34.0	34.0	34.0	34.0	40.0	40.0
15-21세	4.2	21.7	15.1	4.9	7.0	6.9
21-44세	74.0	46.4	56.4	72.9	52.9	54.7
44세이상	21.8	31.9	28.1	22.3	40.1	38.4
히스패닉계	94.6	12.0	43.0	61.8	9.1	13.7
학력비율						
중졸이하	63.4	9.9	30.0	22.2	1.4	3.5
고졸이하	15.4	24.5	21.1	15.6	7.8	8.6
고졸	15.9	35.7	28.2	26.2	30.0	29.6
전문대졸이상	5.4	30.0	20.7	36.0	60.8	58.3
국적비율						
멕시코	90.3	5.3	37.3	41.2	1.2	5.1
미국	0.0	92.6	57.8	0.0	92.2	83.6
기타	9.7	2.0	4.9	58.8	6.6	11.3
결혼유무비율						
결혼	62.5	46.9	52.7	60.3	55.3	55.7
미혼	29.3	43.4	38.1	30.8	29.4	29.6
기타	8.2	9.7	9.1	8.9	15.3	14.7

자료: 2006 Current Population Survey Earnings File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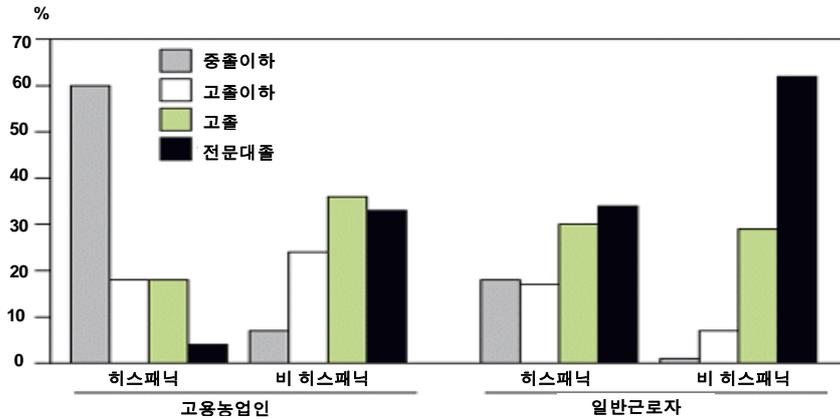
고용 농업인의 인종 및 민족구성은 최근 10년간 현저하게 변화했는데, 히스패닉계 농업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고용농업인의 인종 및 민족구성은 최근 10년간 현저하게 변화하였는데, 히스패닉계³⁾ 농업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6년 통계자료⁴⁾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농업인의 37%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고, 고용농업인의 43%가 히스패닉계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히스패닉계의 대부분(94.6%)이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체 고용농업인 중 35.5%가 시민권을 소지하지 못한 히스패닉계이고, 단지 7.5%만이 시민권을 소지한 히스패닉계라 할 수 있다.

3)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아메리카 출신(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등)을 의미함.

4) 2006년 Current Population Survey.

그림 4 히스패닉계와 비-히스패닉계의 이주민의 교육수준 비교



자료: Farm Labor Survey,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US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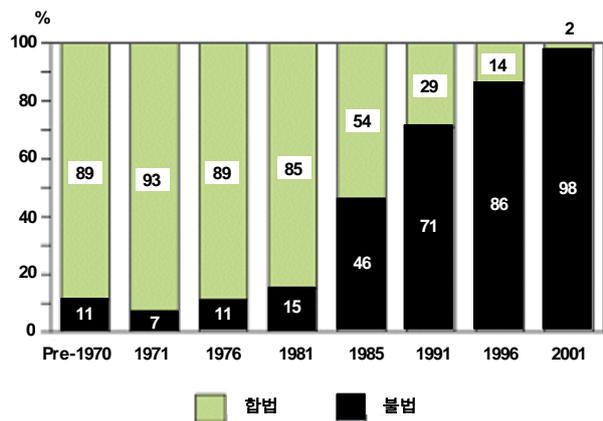
히스패닉계 이외의 인종 및 민족의 변화를 살펴본 1987년의 조사에 따르면 고용 농업인의 8%가 흑인이었지만, 2006년에는 4%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국 원주민이나 아시아계의 고용농업인의 비율은 동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계와 비-히스패닉계 이주민 사이의 교육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히스패닉계 출신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주로 시골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교육 및 근로기회가 적었다. 이들의 평균 교육기간은 약 9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초기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사무직에 종사할 확률은 낮아지고 고용농업인으로 종사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법적 지위

미국 이민당국에 의한 부여되는 법적 지위는 공공서비스 이용, 고용, 주거 이동성, 근무 조건과 임금 등에 영향을 준다. 고용농업인의 법적 지위는 농업노동자나 고용인 모두에게 관심사이다. 미등록 이민 상태인 농업노동자는 불공평한 노동조건과 국외 추방의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고용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이민자들을 선호하게 된다.

그림 5 미국 내 연도별 고용농업인의 법적 지위 변화 비율



자료: National Agricultural Workers Survey, 2004-2006.

미등록 이민 상태인 농업노동자는 불공평한 노동조건과 국외 추방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며, 고용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력 공급을 받기 위해 등록 이민자를 선호하게 된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농업노동자 역시 미국 내에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민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이민개혁과 통제법(IRCA)에서는 1985년과 1986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 말 100만 명 이상의 미등록 농업노동자들이 등록 이민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H-2A⁵⁾ 비자를 통해 미국에 취업한 대부분의 농업노동자는 비자기간 만료 후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특별조치가 없어서 미등록 상태에 놓여있다. 미국 내 농업 부문 취업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농업인 내 미등록 이민자 비율이 다른 산업에서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6. 고용실태

나이, 교육 정도, 고용 경험, 영어 능력과 법적 지위는 경제적 수입과 직업 이동성에 모두 큰 영향을 준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고용농업인이 가지는 불리한 인구통계학의 특성은 미래에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표 2 고용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고용실태 비교

단위: %

구 분	고용농업인			일반 근로자		
	비시민권	시민권	전체	비시민권	시민권	전체
주당근무시간비중						
35시간미만	5.4	18.6	13.6	10.6	14.9	14.5
40-50시간	70.7	41	52.2	76.7	69.5	70.1
50시간이상	10.3	18.4	15.4	5.6	7.6	7.4
기타	13.6	22	18.8	7.1	8.1	8
고용형태비중						
전일근무	93.7	75	82.4	88.1	83	83.5
시간근무	6.3	25	17.6	11.9	17	16.5
임금형태비중						
시급제	75.9	55.7	63.1	68.3	58.8	59.7
월급제	24.1	44.3	36.9	31.7	41.2	40.3
겸업 및 부업	0.3	7.1	4.5	2.9	5.6	5.3
시간외수당 및 보너스 지급	7	5.1	5.8	9.9	14.9	14.3
노조가입	1.7	2.2	2	6.3	12.6	12

자료: 2006 Current Population Survey Earnings File data.

고용농업인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외 수당이나 추가보너스와 같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그들은 농업생산 시기에 따라 주당 50시간 이상 근

5)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농업부문 노동수요에 대응하여 발급하는 비자

무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고용농업인 안에서도 비시민권자는 시민권자에 비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임금체계는 시급제 비율이 약 63%로 다른 일반근로자 임금체계와 비슷하다. 하지만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고, 다른 부업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4.5%로 낮은 편이다. 또한 고용농업인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향이 낮다.

표 3 고용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실업률

단위: %

구 분	고용농업인			일반 근로자		
	비시민권	시민권	전체	비시민권	시민권	전체
전체평균	9.9	7.7	8.5	4.3	4.5	4.5
성별						
여	17.6	11.6	13.7	5.1	4.3	4.4
남	8.1	6.6	7.2	3.8	4.7	4.6
나이						
15-21세	14.3	10.8	11.2	7	9.7	9.6
21-44세	8.3	8.8	8.3	4	4.8	4.7
44세 이상	14.3	4.5	7.6	4.6	3.2	3.3
인종 및 민족						
히스패닉계	9.5	15	10.5	4.4	4.9	4.8
비-히스패닉계	17.3	6.6	7	4.1	4.5	4.5
학력						
중졸이하	12	11.7	12	5.1	5.7	5.7
고졸이하	9.6	9.3	9.4	5.6	10.1	9.4
고졸	4.2	7.5	6.8	4	5.6	5.5
전문대졸이상	0.5	5.1	4.7	3.3	3.2	3.2
결혼유무						
결혼	8.5	5	6.6	3.9	2.7	2.8
미혼	11.3	9.3	10	5.1	5.2	5.2
기타	12.4	10.1	10.7	4.8	7.4	7.1
농산업 부문						
경중	12.8	12.1	12.4	N/A	N/A	N/A
축산	1.1	3.7	3.1	N/A	N/A	N/A
직급						
일반직	10.5	8.6	9.4	N/A	N/A	N/A
관리직	2.1	4.1	3.7	N/A	N/A	N/A

자료: 2006 Current Population Survey Earnings File data.

농업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고용농업인은 다른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2배 이상 실업상태(계절적 실업 포함)에 놓일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조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의 실업률은 일반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러한 현상은 44세 이상 농업 근로자, 히스패닉계, 비시민권자, 외국인 등에서도 나타난다. 반대로 교육기간이 9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농업인과 일반근로자간의 실업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고용농업인은 다른 일반 임금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 실업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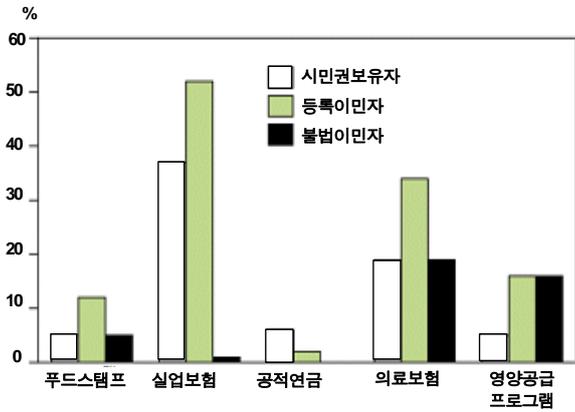
다음으로 고용농업인 내에서 살펴보면 경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농업인의 실업률이 축산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종부문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리고 일반 고용농업인이 관리직 고용농업인보다 약 2.5배 정도 실업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7. 공공서비스 이용실태

위험한 작업공간과 낮은 임금체계 하에서 일하는 고용농업인은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고용농업인의 절반이상이 법적요건 미비로 공공서비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 이민자는 시민권을 보유한 농업인보다 공공서비스 이용도가 높지만, 불법 이민자의 이용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등록 이민자는 푸드스탬프(Food Stamp), 실업보험, 의료보험, 영양 공급 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이민노동자라고 해도 미등록 노동자는 푸드스탬프, 실업보험이나 공적연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림 6 고용농업인의 법적 지위별 공공서비스 이용실태



자료: National Agricultural Workers Survey, 2004-2006.

8. 결론 및 시사점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는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성장, 기술혁신, 세계화 등을 통해 크게 변화하였다. 농업부문 내에서도 기술변화가 농업노동 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고용농업인에 대한 노동수요는 다음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기계화 확대, 기술발전, 해외 농산물 수입 증가
- 2)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신설 농장의 증가, 연중 신선 농산물 소비 증가, 유기농 재배와 같은 노동집약적 농산물의 발전

일반 경제상황 변화와 달리 농업부문 노동시장 여건은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왔다. 일반근로자와 비교해서 농업부문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주로 영어 구사력이 떨어지는 외국인 또는 미등록 이민자가 많은 편이다. 미국 내 농업부문 취업은 외국인들의 미국 노동시장 진입의 주요 경로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근무환경이 위협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농업부문 취업 이민자들은 좀 더 보수가 높고, 덜 힘들고, 좀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다.

미국의 노동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업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열악하다. 미국 내 고용농업인 중 외국인 비율이 40% 이상인 현실에서 미국 내 농업 인력 정책의 변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많은 이주농업인이 고국에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 내 농업인 고용형태가 주로 계절적 고용형태였으나, 점차적으로 연중 고용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채소에 농업부문 노동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농업인들도 과거의 일시적 취업보다는 미국에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고용형태 변화는 고용주나 고용농업인 모두에게 이익이다. 왜냐하면 농업고용주 입장에서는 농업인력의 안정적 이용과 장기간 근무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고용농업인은 임금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USDA, "Profile of Hired Farmworkers, a 2008 Update".

아직까지 농업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열악하다. 미국 내 고용농업인 중 외국인 비율이 40% 이상인 현실에서 미국 내 농업 인력 정책변화는 해외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업부문 교차준수 적용사례와 시사점*

정 호 근

유럽연합에서는 교차준수의 도입을 통해 농촌정책 뿐만 아니라 소득정책에서도 농업의 공공적, 환경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7년부터 농가가 받는 모든 단일직불금에 환경적, 생태적 기능과 관련한 의무준수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원래는 농촌정책에서 주로 환경과 관련하여 농가에게 부가되던 준수사항이 농업정책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의 기능뿐만 아니라 토지보존, 환경보존 등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가져가면서 DDA협상 등의 국제협약에서 허용하는 지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지원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교차준수의 도입을 통해 농촌정책 뿐만 아니라 소득정책에서도 농업의 공공적, 환경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유럽연합의 교차준수와 관련한 규정, 지침 시행과 이의 변화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1. 교차준수란?

교차준수의 목적

교차준수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본사항 이외의 준수사항으로 주로 환경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 EU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차준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교차준수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본사항 이외의 준수사항으로 주로 환경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 본 내용은 유럽연합과 Cumulus Consultants Ltd.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호근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다 (hogunc@krei.re.kr, 02-3299-4150)

- 직접지원을 농지, 농업 생산활동과 관련한 규칙과 연계함으로써 유럽연합 내의 환경, 식품안전, 동물복지, 농업조건, 환경조건에 관한 기준을 통합한다.
- 농지방치 문제를 없애고 농지의 농업, 환경조건을 유지한다.
- 환경생태적 중요성에 비추어 기존의 영구적인 초지를 유지한다.
- 농업의 지속성을 향상시킨다.
- 규정을 준수하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차준수의 시작과 발전

교차준수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이다. 1970년대 농업정책에서 농가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일정 조건들을 준수해야 했다. 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그 프로그램에서 정한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 프로그램의 규정도 부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이 생겨났고, 프로그램들이 엇갈리며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의미(making a link across programmes)에서 ‘교차준수(Cross Compliance)’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용어는 이후 확대 해석되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상호연결을 의미하게 된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유럽연합 농업정책에 환경적인 고려를 함께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맥쉐리(MacSharry) 위원장이 1992년 유럽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에서 직불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차준수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농민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농업에 왜 이러한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지원을 계속하려면,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농가가 지켜나가게 함으로써 농가가 사회적, 환경적 이로움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아울러 타산업에 비해 농업부문의 환경관련 규제가 낮아 환경손실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내용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맥쉐리 개혁의 일환으로 환경 교차준수가 처음으로 CAP에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곡물재배를 위한 농지의 의무 휴경과 관련하여 적절한 환경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소와 양에 대해 두당 지급하는 직불보조에 대해 환경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에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가축보조에 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보조를 줄인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2000년 CAP 개혁인 아젠다 2000(Agenda 2000)에서 교차준수의 적용이 확대되었는데 일반규정 1259/1999의 제3조(Article 3)가 농업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에서 나오는 모든 직불보조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내의 일반규정에 따른 모든 농업행위가 ‘환경보호요구’에 준하여 이루어지도록 관리수단을 만들어야 했다. 회원국들은 관리수단을 어긴 농가에 대해

교차준수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미국이다. 이 용어는 이후 확대 해석되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과의 상호연결을 의미하게 된다.

1992년 맥쉐리 개혁의 일환으로 환경 교차준수가 처음으로 CAP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CAP 개혁인 아젠다 2000(Agenda 2000)에서 교차준수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생태적 영향정도에 따라서 직불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고,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이 교차준수 위반에 따른 농가 직접보조금 감소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3년 CAP의 중간평가를 통해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농업과 농촌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차준수를 정책에 적용하는 방식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유럽공동농업정책안에 식품안전성 문제를 통합하는 문제, 환경부분의 강화, 보조를 줄여야 한다는 압력에 대한 대응, 서비스 제공의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03년 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회원국들이 교차준수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교차준수의 적용범위는 원래의 환경문제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규정 1782/2003’에 따라 농가들은 단일직불의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 환경, 공공, 동식물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만 했다. 이러한 기준들은 법적영농조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 SMR), 우수농업 및 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에 명시된다.

법적영농조건(SMR)은 직불금의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농가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질산지침(Nitrate Directive)과 같은 기존의 유럽연합 지침이나 규정에 기초하고 있다. 우수농업 및 환경조건(GAEC)은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에게만 적용되는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곧이어 유럽연합 농촌발전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에서 제공되는 지원에 적용되는 ‘규정 1698/2005’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농촌발전 지원(Pillar 2 payment)은 친환경, 동물복지에 관해 정해진 일정한 기준을 지키는 농가에게만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에서 현재 이행하고 있는 교차준수의 형태는 2003년 CAP개혁에서 동의되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이행되었지만, 2007~2008년 CAP점검(health check)과 2009년 유럽연합 예산리뷰를 위해 교차준수 효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의 글은 유럽연합위원회 보엘 위원장이 교차준수의 개선과 관련하여 2007년에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어떻게 하면 교차준수를 보다 단순화하여 행정부와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가가 주 내용이다.

2003년 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에서 회원국들의 교차준수를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에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교차준수의 적용범위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었다.

유럽연합위원회 보엘 위원장은 교차준수를 보다 단순화하여 행정부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의 성명서를 2007년에 발표하였다.

“농가의 제도준수 부담을 줄임: 교차준수의 단순화”

위원회에서 방금 농업부문 교차준수 시스템을 효율화, 단순화, 개선하기 위한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유럽연합 내 국가에서 행정부, 농민 모두 교차준수와 관련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개혁으로 지불과 생산의 연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농가가 돈을 받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U의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가는 교차준수에 기초해 여러 가지 기준들(환경, 건강, 동물복지, 토지보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교차준수의 시행을 통해 농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하고 CAP 정책에 대한 소비자, 납세자의 동의를 보다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농가는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공공재 역할”의 수행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 대다수가 교차준수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80% 이상이 농가가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지불금액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정책이 생산에서 보다 멀어지고 환경보호, 동물복지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교차준수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교차준수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농가와 행정부에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CAP을 단순화시키는 우리 위원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회원국들이 교차준수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5년 이후 여러 권의 가이드 북도 발행하였습니다. 회원국들 간에 좋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작은 금액의 벌금은 면제
- 회원국들간의 제어율을 표준화
- 현장검사 전 농가에 사전적으로 알림 (사료·곡물법, 동물의 복지·등록·이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검사의 효율화
- 새로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교차준수의 기준을 점차 도입해 나갈 것을 허용 (phase-in period)

최근 통계(Eurostat)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농업부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7개 회원국의 농민 1인당 소득이 2006년에 3.8% 올랐습니다. 네덜란드(15%), 폴란드(10%), 벨기에(9%)가 으뜸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사정은 다릅니다. 개정된 CAP로 모든 농가들이 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issioner Mariann Fischer Boel, press conference, Brussels, 3.29.2007)

2. “법적영농조건 “과 “우수농업 및 환경조건”

농가가 시장·소득정책 및 농촌개발정책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법적영농조건(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 SMR), 우수농업 및 환경조건(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 영구초지유지(Permanent Pasture)가 있다.

법적영농조건 (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

SMR은 “규정 1782/2003의 부속서(Annex) III”에 나와 있는 5가지의 환경지침에 기초하고 있다. 농가는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감소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지침은 다음과 같다.

법적영농조건에 따라, 농가는 5가지의 환경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감소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 수자원 보호와 관련한 '지하수지침', '질산지침' (Groundwater and Nitrates Directives)
- 환경, 특히 토양과 관련한 '하수침전물지침' (Sewage Sludge Directives)
- 조류, 서식지, 식물보존과 관련한 '조류지침', '서식지침' (Birds and Habitats Directives)

물오염과 토양손실은 농업생산의 집적화, 단일품목 전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다. 조류, 서식지, 식물보존은 농업의 집적화, 단일품목 전문화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제성 한계에 따른 토지방치와도 관련이 있다. 회원국들은 부속서 III에 나와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SMR을 정의하고, 농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시점(어느 수준이 critical point)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회원국들이 정한 제재 기준은 '질산지침'이나 '하수침전물지침'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조류지침', '서식지침'에 관해서는 국가별로 세부지침 뿐만 아니라 제재기준도 각자가 처한 자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수농업 및 환경조건 (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GAEC는 '부속서 IV'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토양침식, 토양유기질, 토양구조가 주요 이슈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농지유지와 서식지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농지관리가 다루어진다. '부속서 IV'는 '부속서 III'과 비교하여 생산집적(intensification), 단일품목전문화(specialization), 한계적농업(marginalisation)에 따른 농지방치(abandonment) 같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 사정에 맞는 적용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해당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

GAEC에서는 토양 침식, 토양유기질, 토양구조가 주요 이슈이며, 부가적으로 농지유지와 서식지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농지관리가 다루어진다.

부속서 IV에서 첫 번째 이슈는 '토양침식'으로 점검사항으로 토양 상층부 덮기(soil cover), 토지관리(land management), 계단식 농지 또는 경사지 유지(retain terrace)가 있다. 독일의 예를 보면 최소한 40%의 농경지는 그린커버를 유지하여야 하고 계단식 농지를 허가없이 없앨 수 없다.

두 번째 이슈는 '토양유기질'로서 재배하는 곡물의 순환과 곡물 그루터기(stubble) 관리가 점검사항이다. 덴마크의 경우 농가는 재배순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루터기를(stubble) 태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슈는 '토양구조'로 적절한 농기계사용을 점검사항으로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물이 차 있는 농지(waterlogged)에서는 농기계작업을 금지한다.

네 번째 이슈는 '농지의 최소한 관리'로 가축 수, 영구초지관리, 경관유지, 농지의 잡초유입을 점검사항으로 가진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많은 회원국들이 적용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적용기준들로 방치된 농경지 관리, 초지의 멀칭이나 베기, 유적보존, 농장경계 관리, 잡초관리, 산울타리(hedgerow)관리 등이 포함된다.

3. 교차준수 이행여부의 검사와 위반에 대한 제재

연장검사 (On-the-spot-checks)

회원국이 지정한 검사기관(Competent Control Authority)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1%에 대해 교차준수 의무의 이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가축이력·등록과 같은 준수부분은 보다 높은 검사율이 적용된다. 보통 한 번의 현장검사에 여러 준수내용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진다. 모든 SMR, GAEC에 대한 검사가 한 번의 방문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정된 검사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해당 전문가가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사자는 공식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검사에 임한다. 다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SMR의 조류지침(Bird Directive) 이행여부를 한 번의 현장방문을 통해 밝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드방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도 질산지침(Nitrate Directive)의 이행여부에 관한 것은 서류심사를 통해 하고 있다.

현장검사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 조사방법(서류검토, 현장검사, 해당 가축이나 필드의 전수조사여부)
- 검사에 사용되는 기준의 복잡도
- 현장검사를 해야 하는 농가수와 농가 경영규모
- 검사관의 이동거리 (농장의 위치)
- 지정 검사기관과 직불금 지불기관과의 의견조율에 걸리는 시간¹⁾

조사항목 중에서 SMR의 가축이력은 모든 가축을 개별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든다. 평균 한 농가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탈리아 베네토(Veneto)지역²⁾의 4시간에서 영국의 36시간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

교차준수의 이행이 농가단위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정검사기관 뿐만 아니라 지불기관이나 다른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주정부 뿐만 아니라 산림부, 산림·자연청, 지역사무소까지 교차준수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회원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1%에 대해 교차준수 의무의 이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보통 한 번의 현장검사에 여러 준수내용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진다.

1) 물론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검사기관과 지불기관이 동일하다.
 2) 주도는 베네치아다. 옛 이름은 베네치아 에우가네아이다. 롬바르디아주(州)의 동부에 있으며, 포·아디제·브렌다·피아베 등의 하천이 형성한 비옥한 충적평야를 차지하는 중요한 농업지대이다. 곡물류·감자·사탕무·대마·포도·일단배 등의 생산은 이탈리아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북부는 가르다호(湖)의 북동쪽 오스트리아의 국경까지 이 어지며, 여름에는 피서지로 유명하며, 겨울에는 스키를 비롯한 동계 스포츠로 유명한 아시아고 고원(高原)·돌로미티케산맥·카르니케-알프스산지 등이 가로놓여 있어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EU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단일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5%에 해당하는 240,898농가가 현장검사를 받았다. 요구되는 최소율(1%)에 비해 훨씬 많은 수가 검사를 받은 것은 가축 이력·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강력한 검사율이 적용되었고 EC-10에서는 농가의 적절여부에 대한 관리(eligibility control)를 별도로 검사해 왔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단일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20년에 한번 현장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있다. 반면 민간의 품질규격이나 인증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어서 검사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야 한다.

교차준수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

EU-25의 12%에 해당하는 농가가 교차준수의 기준을 지키지 않아 페널티를 받았다. EU-15(16.4%)는 EU-10(6.1%)보다 이행하지 않은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들에서 아직 SM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U-15에서 보면 SMR로 인한 적발이 GAEC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SMR에서 조류·서식지침으로 인해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다.

EU는 교차준수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직불금을 줄이는 표준화된 계산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위반의 정도, 양, 기간, 반복성에 기초하고 있다. 제재는 1%에서 10%까지 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위반이 경미한 경우 바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농림부(DEFRA)가 경고편지를 우선 발송한다. 경고편지에는 언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고 언제 재차 방문을 통해 이행여부를 검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러한 방법은 좀 더 매끄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행정적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EU는 교차준수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직불금을 줄이는 표준화된 계산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위반의 정도, 양, 기간, 반복성에 기초하고 있다.

표 1 EU-15 농가의 교차준수의무 미이행 사유와 비율

단위: %

교차준수의무	농가 비율
SMR -가축 이력·등록	71
GAEC	13
SMR - 질산기준	10
기타	6
계	100

2007년 유럽연합 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에 회원국들이 농가의 직불금에 대한 1% 제재가 전체의 68%를 차지하였고 상호위반의문 위반에 따른 총 제재 금액은 2005년에 984만 유로이다.

표2 교차준수 미이행에 따른 적용 제재율(2005)

단위: %

제재율	총 제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1	68
3	14
5	12
기타	6
계	100

4. 시사점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는 아니더라도 큰 반대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보조와 같은 수단을 통해 농가들이 사회적인 공헌을 보다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공헌에 대한 대가로 직접지원을 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이는 DDA협상을 포함한 국제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명시적으로 교차보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 쌀소득보전 직불의 농지형태보존이나 상수원보호를 위해 농촌공사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준수내용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확대하여 유럽의 교차보조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기관 및 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세부지침 및 기준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 농업의 환경공헌 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1992년에 처음으로 교차보조를 직접보조에 도입한 후 2000년, 2003년, 2007년의 유럽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확대와 개정을 한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교차보조의 시행은 국가나 농민에게나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이다. 유럽연합의 교차보조 적용사례를 통해 시행의 어려움을 항목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제도 고안 : 품목별, 지역별 차이를 감안하여 준수사항을 차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U에서 보면 회원국별로 우선 적용지침내용이 다르다.³⁾ 또한 적용지침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요한 경우(if necessary)만 A의 기준을 적용 한다’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문구의 해석과 현실적 적용은 현장전문가에게 어려운 숙제가 된다.
- 현장검사의 어려움 : 품목별, 지역별 현장검사의 난이도 차이가 크고 요구되는 검사자의 전문성도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다.
- 페널티 적용의 어려움 : 검사기관과 지불기관이 다른 경우 경우에 따라서 두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 페널티 적용에 농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3) 물론 최근에 회원국의 제어율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적용하는 세부지침을 모두 동일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는 아니더라도 큰 반대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보조와 같은 수단을 통해 농가들이 사회적인 공헌을 보다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차보조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담당기관이 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농가들은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인식,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교차보조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담당기관이 검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농가들은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야 한다.

시사점을 얻기 위해 앞서 보웬 위원장의 성명서에 나온 유럽연합 교차보조의 개정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작은 금액의 벌금은 면제
- 회원국가들 간의 제어를 표준화
- 현장검사 전 농가에 사전적으로 알림
- 검사의 효율화
- 새로 가입한 회원국에는 교차준수의 기준을 점차적으로 도입

농가와 정부 담당기관의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제도 시행의 관건이다. 금전적, 시간적 행정비용과 사회적, 환경적 기대효과와 실현(기대수익의 실현)은 상충관계이다. 어디까지 제도이행과 검사, 적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최적인지는 제도시행을 통한 경험과 시행착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 초창기에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부 록

보조에 의한 농촌정책에의 교차보조 적용사례 (네덜란드)

2002년 이후 국가자연생태네트워크(NEN)의 토지매입자금 마련이 경기침체로 인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에 대한 보조를 통한 농업자연보존(ANC)이 늘어가고 있다. 자연지역 보존과 관련한 정책은 프로그램보존법(Program Conservation Act)에 의거하여 만들어지며 농업자연보존을 위한 농가보조의 방식도 이 법에 준한다. 정부와 ANC의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보조금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하거나 생태계에 이로운 활동을 한다. 자연계약(nature contracts)이라고도 불리는 ANC는 6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된다. 토지수자원청이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규제이행청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농가에게 계약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 ANC에는 2005년 현재 9,311개의 농가가 보유농지 76,000ha에 대해 가입을 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11%, 토지의 4%에 해당한다.

표 3 ANC 계약면적

단위: 1,000ha

년 도	면 적
1990	16
1995	39
2000	65
2005	76

주로 농가와와의 계약체결을 토지수자원청이 담당하지만 필요시 기초자치단체나 다른 기관들이 수행하기도 한다. 많은 농가들은 새둥지의 보호를 위한 자연계약을 정부와 맺고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123개의 지부로 구성된 농업자연농가협회(Union of Agricultural Nature Farmers)의 회원으로, 2003년 현재 전체 농가의 22%에 해당하는 18,500농가가 새둥지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연계약에도 참여하는 농가들이다. 지난 15년 동안 자연계약에 참여하는 면적은 크게 증가해 오고 있다.

자연계약의 예를 들어보면 토탄지역의 초지에 사는 조류를 보호하고 특히 봄에 새둥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농가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해당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초지를 항상 유지하고 살충제,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6월 22일까지는 초지에 소를 방목하지 않는다. 이의 대가로 농가는 1년에 450유로/ha를 지급받는다.

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계약 이외에 농지이용과 관련한 농경지프로그램 (Arable land package), 특정 종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동물경계(Fauna Borders), 농지를 휴식하는 장기휴경(Long-term out of crop of nature), 경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관 프로그램(Landscape package), 습지의 개발이나 보존 등에 관한 개발유지(Development for maintenance)가 있다.

참고자료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7) "On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f cross-compliance"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Council, Brussels.
- Farmer, M, Swales, V, Kristensen, L, Nitsch, H and Poux, X (2007) "Cross Compliance: Practice, Lessons and Recommendations", Deliverable D24 of the CC Network Project, SSPE-2005-022727.
- Mariann Fischer Boel (2007) "Making life easier for farmers: Simplifying the Cross Compliance Rules" Press Conference, Brussels.
- Piet Rijk, Ernst Bos (2008) "The Dutch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with an outlook to South-Korea- Policies and results in past, present, and future" Report prepared for the KREI.
- Silcock Paul, and Swales, V (2007) "Cross Compliance A Policy Options Paper" Report for Land Use Policy Group, Cumulus Consultants Ltd.



국제기구 동향

DDA, 2008년 10월 농업협상

DDA, 2008년 10월 농업협상*

신 유 선

10월 1일 비공식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농업협상 의장 주재 다자협상이 본격화되어 소그룹회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일 비공식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농업협상 의장 주재 다자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소그룹회의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팔코너 의장¹⁾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²⁾,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³⁾, 수입쿼타(Tariff Rate Quota, TRQ)⁴⁾ 신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⁵⁾ 소그룹에 참여하였다.

10월 10일 라미 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TNC)⁶⁾에서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 1) 팔코너 의장은 올해 제네바 임기를 마치고 12월 중순경 뉴질랜드로 복귀하여 FTA 관련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
- 2)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SSM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관세단순화는 종량세 등의 관세를 종가세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452개 농산물 세번 중에서 76개 세번이 종량세이고, 이 또한 종가세와 병기되어 있어 종량세와 종가세 중 더 높은 수치를 적용하는 혼합세이다.
- 4)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5%의 관세를 쿼터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한다. 만약, 한해 동안 콩의 수입이 70톤만 되었을 경우, 수입쿼터 소진율(fill rate)은 70%가 되고 30톤이 미소진(underfill)되었다고 말한다.
- 5)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감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감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6) UR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했던 각료급 최고의결기간을 말한다. UR협상시 무역교섭위원회 산하에 크게 상품협상그룹(GNC)과 서비스협상그룹(GNS)로 구분되어 있다. 상품협상그룹은 다시 시장개방분야, GATT규율분야, 신상품분야 등으로 나뉘어 14개 세부협상 그룹이 있으며, 서비스협상 그룹은 상품협상그룹과 별도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국제규범정립을 담당하고 있다. 각 그룹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TNC회의에 상정되고 TNC회의에서는 각 협상그룹에서 올라온 결과를 놓고 그룹간의 조정을 통해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⁷⁾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를 다소 낮추어 올해 안에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⁸⁾ 세부원칙(Modalities)⁹⁾ 타결에 집중할 것을 제의하였다. 팔코너 의장은 세부원칙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11월 중순에 새로운 텍스트가 회람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많은 진전이 필요하므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 DDA 농업협상 동향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은 각료회의¹⁰⁾ 결렬 이후 9월 중순에 진행된 선진 7개국(G7)¹¹⁾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타협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발동기준 및 규제조치 이원화라는 EU 제안과 정상 교역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수입 증가율을 반영하는 호주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팔코너 의장이 소그룹회의에서 SSM 발동기간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향후 발동기간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낮은 수준의 발동기준을 인정하되 발동기간을 줄이는 방안과 한 해에 발동할 경우 다음 해에는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1 year on and off) 등이 있다. 한편 팔코너 의장은 '수입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관세단순화

캐나다, 미국 및 수출개도국그룹(G20)¹²⁾ 국가들 중심으로 2005년 합의한 증가상당

SSM은 각료회의 결렬 이후 9월 중순에 진행된 G7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타협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 7)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무역 협상을 말한다. 이전의 '라운드'라는 명칭대신에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협상은 WTO 15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8년 현재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8)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한다.
- 9)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들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10) WTO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고 통상 2년에 한 번 열린다.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에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 11)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그룹이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하여 G8이라고 하며, 신흥 개도국 15개국을 포함하여 G22이라고 한다.

캐나다, 미국 및 G20 국가들 중심으로 2005년 합의한 증가상당치 전환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TRQ 신설을 주장하는 일본, 미국, EU, 스위스 등의 국가들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AMS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 12,938백만 달러, EU는 2004년 30,880백만 유로, 일본은 2006년 571십만 엔을 각각 지급하였다.

치 전환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기준연도(1999~2001)를 적용하여 종량세를 증가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관세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팔코너 의장은 2005년 합의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원칙적으로 관세단순화를 진행하되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단순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한편 EU는 관세단순화시 증가세 비율은 전체 세번의 80%가 red line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RQ 신설

TRQ 신설을 주장하는 일본, 미국, EU, 스위스 등의 국가들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기존의 TRQ 품목 내의 비TRQ 세번(Tariff Line, TL)¹³⁾을 TRQ 세번화하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TRQ 품목 신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다.

팔코너 의장은 4개의 범주로 나누어 TRQ 신설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교역이 활발한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TRQ 신설을 제한하고, 둘째, 이미 TRQ가 있는 품목의 대체재 혹은 대체재와 유사한 품목에 대해서는 TRQ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존 TRQ 품목 내 비TRQ 세번에 대해 TRQ 신설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전혀 새로운 품목에 대해 TRQ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의장은 TRQ 신설 세번 수는 세번의 1%에 한해 인정하되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3%까지 허용하고 쿼터내 세율을 0%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내 보조 연왕 및 전망

주요국의 국내보조 연왕

미국은 WTO에 2005년까지의 보조금 지급 실적을 통보하였고, EU와 캐나다는 2004년, 일본의 경우는 2006년까지 통보하였다.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¹⁴⁾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5년 12,938백만 달러, EU는 2004년 30,880백만 유로, 캐나다는 2004년 1,358백만 달러, 일본은 2006년 571십만

12)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13)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 단위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 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14) 농업보조총액이라고도 한다. UR 협상 결과 각국이 추곡수매제 등에 사용하는 보조금 한도를 정해서 이행계획서에 표시했고, 이것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선진국은 6년간 20%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이렇게 감축하고 남은 한도에서부터 감축하기로 하였다.

엔을 각각 지급하였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는 2001년과 2002년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De minimis)¹⁵⁾가 한도를 초과하여 AMS로 산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을 제외하고는 블루박스 지급실적이 없는 반면, EU는 <표 2>에서 처럼 매년 블루박스를 지급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는 블루박스 실적이 전무하며, 일본은 1998년 이후 블루박스를 소액 지급하였다.

표 1 미국의 국내보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업총생산액	190,110	205,701	203,884	190,886	184,735	189,520	198,503	193,151	215,291	234,094	231,885
AMS 전체지원한도	23,083	22,287	21,491	20,695	19,899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19,103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¹⁶⁾	14,731	7,095	7,057	15,149	24,297	24,143	21,458	16,328	10,186	18,087	18,918
감축보조(AMS)	6,214	5,898	6,238	10,392	16,862	16,803	14,413	9,637	6,950	11,629	12,938
감축면제보조											
품목특정 De-minimis	101	83	252	173	29	63	217	1,590	435	680	118
품목불특정 De-minimis	1,386	1,115	567	4,584	7,406	7,278	6,828	5,101	2,801	5,778	5,862
블루박스(Blue Box)	7,030	0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Green Box)	46,041*	51,825	51,252*	49,820*	49,749	50,057	50,672	21	64,062	67,425	71,829

주: *표는 최근년도 보조금 통보실적에서 과거년도 수치가 바뀐 것임.

표 2 EU의 국내보조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구분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농업총생산액	207,400	219,700	217,800	213,500	233,700	243,359	246,418	242,955	267,388
AMS 전체지원한도	78,672	76,369	74,067	71,765	69,463	67,159	67,159	67,159	67,159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68,995	73,040	70,970	67,313	54,779	66,437	63,840	55,159	57,715
감축보조(AMS)	47,526	51,009	50,194	46,683	47,886	43,654	39,281	28,490	30,880
감축면제보조									
품목특정 De-minimis	-154	-201	-154	-222	-109	23	260	1,004	901
품목불특정 De-minimis	777	711	486	348	291	537	574	938	1,052
블루박스(Blue Box)	20,846	21,521	20,443	20,504	19,792	22,223	23,726	24,727	24,782
허용보조(Green Box)	18,718	23,628	18,167*	19,168	21,916*	21,848*	20,661	20,404	22,074

주: *표는 corrigendum으로 수정한 수치임.

15)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성격이 같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감축의 무가 면제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생산액의 5%, 개도국의 경우 10% 한도 이내이면 최소허용보조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도 AMS와 마찬가지로 감축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감축율만큼 감축을 해야 한다.

16) UR 협상에서 크게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인 그린박스와 감축을 해야 하거나 사용에 제한이 따르는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의 개념이 탄생하였다. DDA 협상에서는 AMS, De-minimis, 블루박스를 묶어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이라고 하기로 했으며, AMS, De-minimis, 블루박스 각각도 감축해야 하고 사용상 제한이 따르며, 이를 모두 더한 OTDS도 감축해야 한다.

표 3 캐나다의 국내보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총생산액	25,816	28,015	29,015	28,739	28,630	31,747	33,504	33,740	34,431	34,283
AMS 전체지원한도	5,197	5,017	4,838	4,659	4,480	4,301	4,301	4,301	4,301	4,301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	2,033	1,760	1,486	1,877	2,041	2,298	3,082	3,830	3,005	3,185
감축보조(AMS)	777	619	522	776*	906*	848	2,824	3,450	1,585	1,358
감축 면제 보조										
품목특정 De-minimis	302	355	177	216	203	243	258	380	286	176
품목불특정 De-minimis	954	787	787	885	933	1,207	0	0	1,134	1,651
블루박스 (Blue Box)	0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 (Green Box)	2,098	1,995	1,235	1,300	1,749	2,315	1,716	1,707	3,402	4,101

주 1) *표는 corrigendum으로 수정한 수치임.
 2) 2001, 2002년 품목불특정 De-minimis는 한도초과 이유로 AMS로 산입되었음.

표 4 일본의 국내보조 현황

단위: 십만 엔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업총생산액	10,450	10,249	9,832	9,944	9,418	9,122	8,881	8,926	8,901	8,786	8,806	-
AMS 전체지원한도	4,801	4,635	4,470	4,304	4,138	3,973	3,973	3,973	3,973	3,973	3,973	3,973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	3,544	3,367	3,207	842	781	740	699	774	678	649	635	609
감축보조(AMS)	3,508	3,330	3,171	767	748	709	667	730	642	608	593	571
감축 면제 보조												
품목특정 De-minimis	13	11	12	53	10	11	12	23	18	24	23	19
품목불특정 De-minimis	24	26	24	22	22	21	20	20	18	17	18	19
블루박스(Blue Box)	0	0	0	50	93	93	91	87	68	68	65	70
허용보조 (Green Box)	3,169	2,826	2,652	3,002	2,679	2,593	2,547	2,275	2,086	2,094*	1,916	1,802

주: *표는 corrigendum으로 수정한 수치임.

우리나라의 국내 보조 현황

우리나라는 AMS를 한도대비 평균 92%를 지급하였고,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생산액 대비 1.25%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WTO에 2004년까지의 보조금 지급실적을 통보하였다. AMS 지급실적은 한도대비 평균 92%를 지급하였으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생산액 대비 1.25%를 활용하였다. 블루박스의 지급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감축대상보조를 품목별 지원내역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 쌀, 보리, 옥수수, 유채, 콩에 대한 품목특정적인 보조가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 대비 10%)을 초과하여 Current AMS 계산에 포함되었다.

허용보조(Green box)로는 2004년도에 총 4조 8,910억 원을 통보하였다. 정부서비스로 하부구조 사업이 2조 1,142억 원, 비연계소득보조로 9,896억 원, 구조조정투자 지원으로 5,966억 원, 자연재해구호지원으로 2,011억 원 등이 지원되었다.

표 5 우리나라의 연도별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총생산액	267,361	290,519	303,884	308,696	331,774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AMS 전체지원한도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감축 면제	AMS 지원	20,755	19,674	19,370	15,628	15,519	16,909	16,316	15,504	14,717
	품목특정 de-minimis	334	533	2,620	2,581	817	1,117	1,477	2,870	2,300
	품목불특정 de-minimis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81	5,014	4,144
	Blue Box	0	0	0	0	0	0	0	0	0
허용보조	40,106	52,138	58,340	54,064	55,182	51,047	57,347	60,929	57,482	49,210
정부서비스	정부서비스	24,790	33,849	38,546	35,812	36,803	33,043	34,952	34,076	34,698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15,112	17,980	19,416	17,837	17,758	17,498	21,733	26,279	22,190
개도국 우대보조	204	309	378	415	621	506	662	574	594	541
수출보조	12	24	30	36	149	191	259	266	247	256

표 6 품목특정 Current AMS 지급 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AMS 전체지원한도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품목특정 AMS합계	20,755	19,674	19,369	15,628	15,518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 쌀	20,161	19,099	18,843	15,098	15,032	16,472	15,829	15,041	14,255	13,708
- 보리	516	509	460	468	487	418	475	457	457	396
- 옥수수	60	56	57	62	-	-	-	-	-	-
- 유채	18	10	9	-	-	18	12	6	5	7
- 콩	-	-	-	-	-	-	-	-	-	473

표 7 허용보조(Green Box) 운영실적 (2004)

단위: 억 원

구분	세부항목	2004 보조액	
정부 서비스	일반 서비스	조사연구사업	2,787
		검역방제사업	1,193
		교육훈련사업	491
		지도자문사업	595
		검사	1,160
		시장정보및관측지원	171
		하부구조사업	21,142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1,620	
	국내식량구호	147	
	소 계	29,306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비연계소득보조	9,896	
	소득보험및 소득안전망	0	
	자연재해구호지원	2,011	
	구조조정투자지원	5,966	
	환경보전지원	853	
	기 타	336	
소 계	19,062		
개도국 우대보조	투자지원	26	
	자재지원	516	
	소 계	542	
허용보조 전체 합계		48,910	

2004년도에 쌀, 보리, 옥수수, 유채, 콩에 대한 품목특정적인 보조가 최소허용보조수준을 초과하여 Current AMS 계산에 포함되었다.

양우 국내 보조 전망

향후 쟁점별 소그룹 회의 중심의 논의가 예상되나 주요국간 입장차이 및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의 급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용보조로는 2004년도에 총 4조 8,910억 원을 통보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AMS 여유는 많지 않으며, 블루박스 및 최소허용보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개별 보조별 한도를 모두 사용하여도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 한도를 약간 초과하지만 품목특정적 de-minimis와 블루박스 전체 한도를 다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OTDS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쌀의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면 전체 AMS에 여유가 생겨 다른 품목에도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쌀에 대한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도 커지므로 운용상 여유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일본도 1998년에 쌀 유통제도를 개혁하면서 종전의 감축대상보조인 쌀 가격지지정책을 블루박스인 생산제한하의 직불제도로 바꾸면서 AMS 부담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허용보조로 분류할 수 있는 소득보험이나, 생산비연계소득보조, 농가소득안정망제도를 도입하면 국내보조에 대한 감축의무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캐나다도 2003년에 도입한 농업소득안정계정(CAIS; Canadian Agricultural Income Stabilization)은 소득 손실의 30% 이상에 대한 지원액은 허용보조로, 손실 30% 미만에 대한 지원은 품목불특정보조로 분류하고 있고, EU의 농가단위 직불(Single Farm Payment), 일본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은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다.

3. 양우 전망 및 계획

쌀의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면 전체 AMS에 여유가 생겨 다른 품목에도 AMS를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쌀에 대한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도 커지므로 운용상 여유가 생기는 이점이 있다.

향후 쟁점별 소그룹 회의 중심의 논의가 예상되나 주요국간 입장 차이 및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의 급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결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외에 관세단순화 및 TRQ 신설 등에서도 참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11월 4일 미국 대선과 11월 말의 인도 지방선거, 내년 2월에 있을 인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DDA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농림수산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수산물부, 농업통상용어해설, 2007

농림수산물부,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70선, 2008. 6

농림수산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3, 10 July 2008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10)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10)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10)

세계 경제 전망 2008~2009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08. 10)*

성명환

최근 세계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국제 곡물수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 국제 연료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08년 10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92.5% 상승한 톤당 1,124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1.2% 상승한 톤당 676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08년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92.5% 상승한 톤당 1,124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1.2% 상승한 톤당 676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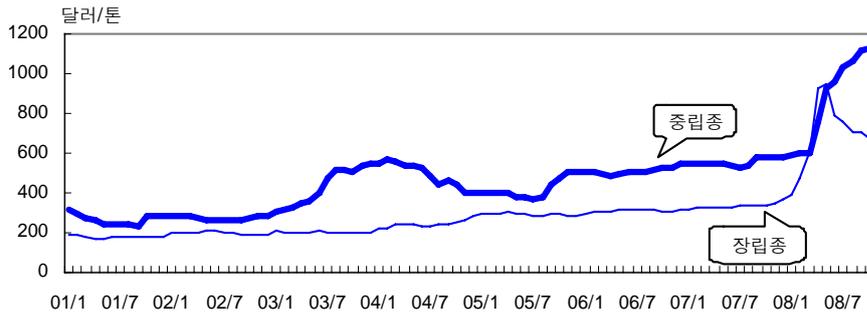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부터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10월 가격도 현재 전년 동월대비 92.5% 상승한 톤당 1,12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이란에 대한 태국산 쌀의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0월 현재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1.2% 상승, 전월대비 3.6% 하락한 톤당 676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제 쌀 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가 증대하고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자국 쌀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쌀의 국제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쌀 수요증가와 베트남, 인도, 중국, 캄보디아, 이집트 등이 자국의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01/1 01/7 02/1 02/7 03/1 03/7 04/1 04/7 05/1 05/7 06/1 06/7 07/1 07/7 08/1 08/7

주: (1) 중립종은 미국 캘리포니아 1등급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6/07	2007/08	2007.10	2008.9	2008.10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 국	CA 중립종 ¹⁾	538	694	584	1,119	1,124	92.5	0.4
	남부 장립종 ¹⁾	407	621	446	791	772	73.1	△2.4
태 국 ²⁾		320	551	336	701	676	101.2	△3.6
베 트 남 ³⁾		292	629	-	573	510	-	△11.0

주: (1) 남부 장립종은 2등급,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 Rice Outlook, September 15, 2008.

2008년 10월 14일 현재 각 곡물의 운임포함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234달러, 대두가 톤당 399달러, 대두박이 톤당 341달러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0월 14일 현재 톤당 23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17.9%, 전월대비 29.3% 하락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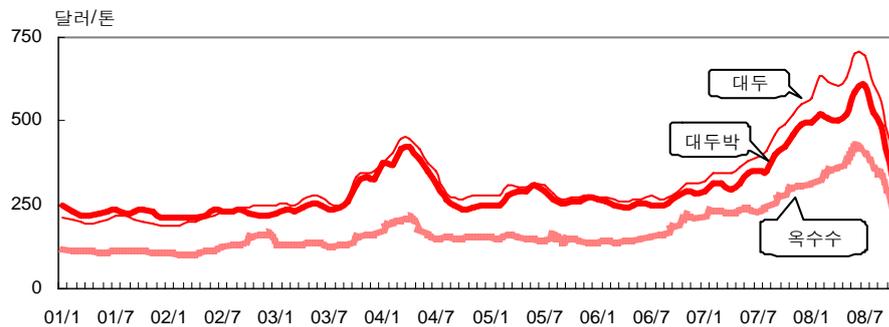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10월 14일 현재 톤당 399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18.6%, 전월대비 28.0% 하락한 것이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8년 10월 14일 현재 톤당 34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9.8%, 전월대비 29.3% 하락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10월 14일 기준 가격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6	2007	2007.10	2008.9	2008.10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164	252	285	331	234	△17.9	△29.3
대 두	278	410	490	554	399	△18.6	△28.0
대 두 박	261	362	425	482	341	△19.8	△29.3

자료: 한국사료협회 2008년 10월 14일 기준 가격

2. 국제 선물가격

2008년 10월 14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9.2% 하락한 톤당 225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4.9% 상승한 톤당 162달러, 2008년 1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8.1% 하락한 톤당 329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하락하여 10월 14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2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2%, 전월대비 19.9%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 증가와 세계 소맥 재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보험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10월 14일 현재 2008년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162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4.9%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는 24.7% 하락하였다. 2008/09년도 옥수수 소비량은 늘어나지만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고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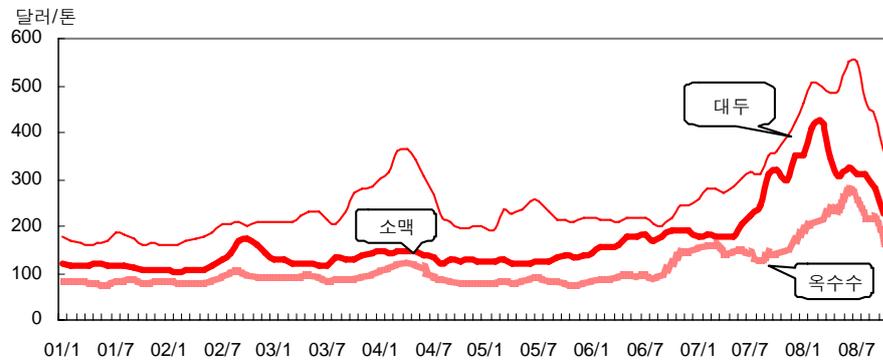
2008년 10월 현재 캔사스 상품 거래소의 2008년 12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225달러이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12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162달러, 1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329달러이다.

대두의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 10월 14일 현재 2008년 11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톤당 329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8.1%, 전월대비 23.8% 하락하였다. 앞으로 대두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6/07	2007/08	2007.10	2008.9	2008.10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1)	181	315	318	281	225	△29.2	△19.9
옥 수 수2)	140	203	141	215	162	14.9	△24.7
대 두2)	267	462	358	432	329	△8.1	△23.8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08년 10월 14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연도 ¹⁾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²⁾		태국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1	315	203	462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 <http://www.ams.usda.gov/mnreports/lst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08. 10)*

성명환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10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08/09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2억 771만 톤, 소비량은 3.4% 증가한 21억 8,313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7.1% 늘어난 3억 7,212만 톤, 기말재고율은 17.0%로 전망되었다.

1. 전세계 곡물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2억 771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1억 8,313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2억 77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소맥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8/09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75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5억 5,525만 톤으로 전년대비 3.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9,671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2008/09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도 전년보다 3.4% 증가한 21억 8,313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2,50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세계적인 성장둔화로 전년보다 2.0% 감소한 2억 6,31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가 될 것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7.1% 증가한 3억 7,212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07/08년도보다 0.5% 포인트 높은 17.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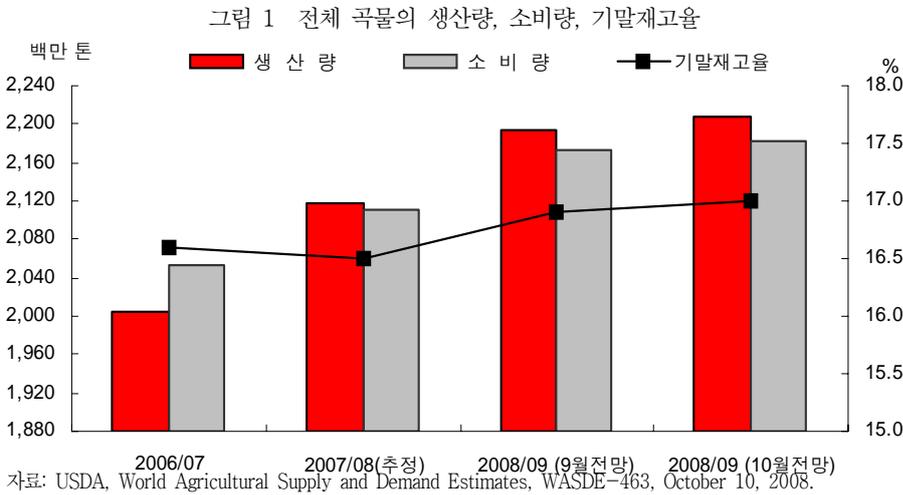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05.78	2,118.12	2,194.96	2,207.71	4.2	0.6
공 급 량	2,394.49	2,458.54	2,541.38	2,555.25	3.9	0.5
소 비 량	2,054.08	2,111.00	2,174.11	2,183.13	3.4	0.4
교 역 량	259.94	268.52	264.10	263.15	△2.0	△0.4
기말재고량	340.41	347.54	367.27	372.12	7.1	1.3
기말재고율(%)	16.6	16.5	16.9	17.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2. 쌀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2007/08년보다 0.7% 증가한 4억 3,323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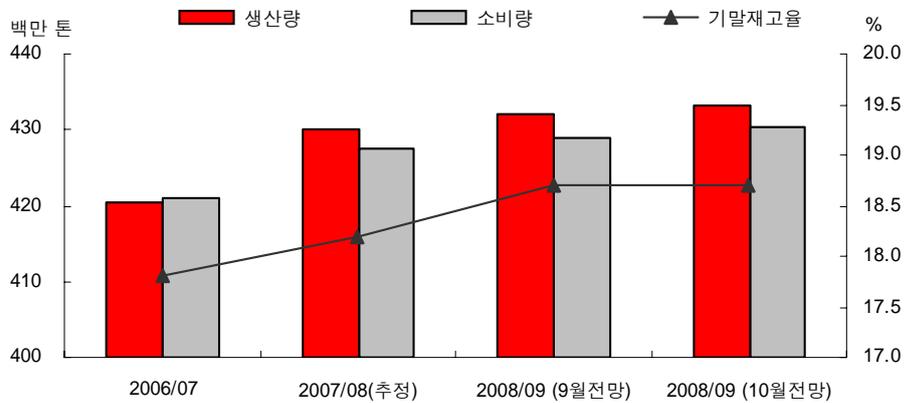
2008/09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4억 3,038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2,748만 톤보다 약 290만 톤 정도 많은 수준이다.

2008/09년도 쌀 생산량은 4억 3,323만 톤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쌀 소비량은 4억 3,038만 톤으로 예상된다.

2008/09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6.7% 줄어든 2,833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량의 경우 베트남은 전년대비 9.5% 증가할 전망이지만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수출량은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3.5%, 베트남 18.4%, 미국이 12.2%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4.1%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8,05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08/09년도 기말재고율은 18.7%로 전년도보다 약 0.5%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고량은 80만 톤으로 전년대비 14.9%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도 20.4%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0%, 4.7%, 5.6%, 10.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2, September 12, 2008.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420.41	430.19	431.98	433.23	0.7	0.3
공급량	496.09	505.17	509.24	510.92	1.1	0.3
소비량	421.10	427.48	428.88	430.38	0.7	0.3
교역량	31.30	30.37	28.25	28.33	△6.7	0.3
기말재고량	74.98	77.69	80.36	80.54	3.7	0.2
기말재고율(%)	17.8	18.2	18.7	18.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3. 소맥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1.3% 증가한 6억 8,0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7/08년보다 6.1% 증가한 6억 5,55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22.4%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7.3% 증가한 1억 2,318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8/09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20.9% 줄어든 2,722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22.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233만 톤 늘어난 1,850만 톤, EU도 전년보다 47.2% 늘어난 1,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2008/09년 기말재고량은 1억 4,441만 톤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EU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96.8%, 26.0%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4%에서 22.0%로 2.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6억 8,020만 톤, 소비량은 미국, EU, 러시아의 소비가 늘어나 6억 5,55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96.30	610.88	676.28	680.20	11.3	0.6
공 급 량	743.94	737.90	794.77	800.00	8.4	0.7
소 비 량	616.93	618.10	654.88	655.58	6.1	0.1
교 역 량	111.20	114.85	122.88	123.18	7.3	0.2
기말재고량	127.02	119.80	139.89	144.41	20.5	3.2
기말재고율(%)	20.6	19.4	21.4	22.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0.7% 줄어든 7억 8,525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EU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24.9%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9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8억 37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멕시코,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3.4%, 1.6%, 6.0% 늘어날 것으로 전

미국,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2008/09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0.7% 감소한 7억 8,525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소비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8억 37만 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3% 포인트 줄어들어 13.5%로 전망된다.

망된다. 2008/09년도에는 소비량은 생산량을 약 1,51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08/09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12.4% 감소한 8,387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6%, 13.1%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73.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17.9%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의 수출량도 26.7%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2.3% 감소한 1억 77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보다 약 1,510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2008/09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3% 포인트 줄어들어 13.5%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712.44	790.99	782.96	785.25	△0.7	0.3
공 급 량	837.22	899.68	906.42	908.13	0.9	0.2
소 비 량	728.53	776.80	796.47	800.37	3.0	0.5
교 역 량	93.80	95.77	86.07	83.87	△12.4	△2.6
기말재고량	108.69	122.88	109.94	107.76	△12.3	△2.0
기말재고율(%)	14.9	15.8	13.8	13.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5. 대두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943만 톤, 소비량은 2억 3,5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2.9%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3,943만 톤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각각 11.5%, 2.5%, 8.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7/08년 2억 2,912만 톤보다 607만 톤 늘어난 2억 3,5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의 소비량이 각각 1.6%, 5.8%, 5.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7,88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은 미국이 36.3%, 브라질이 34.2%, 아르헨티나가 17.9%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 비중이 88.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9.5%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6.4%,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5,52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268만 톤과 비교하여 4.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은 23.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36.56	220.69	237.99	239.43	8.5	0.6
공 급 량	289.64	283.34	288.12	292.11	3.1	1.4
소 비 량	224.52	229.12	236.76	235.19	2.6	△0.7
교 역 량	71.50	79.14	77.60	78.84	△0.4	1.6
기말재고량	62.65	52.68	51.23	55.24	4.9	7.8
기말재고율(%)	27.9	23.0	21.6	23.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6. 대두박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6,158만 톤, 소비량은 1억 5,994만 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2.2%,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6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5,74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 중 아르헨티나가 49.4%, 브라질이 22.3%, 미국이 13.6%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5.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630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3.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8/09년도 세계 대두박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2.2%, 소비량은 1.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5.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수출 비중이 85.3%에 이를 전망이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53.86	158.15	162.65	161.58	2.2	△0.7
공 급 량	159.83	164.15	169.20	168.17	2.4	△0.6
소 비 량	152.09	157.09	161.04	159.94	1.8	△0.7
교 역 량	54.29	55.61	57.63	57.45	3.3	△0.3
기말재고량	6.00	6.59	6.26	6.30	△4.4	0.6
기말재고율(%)	3.9	4.2	3.9	3.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6.09	505.17	509.24	510.92	1.1	0.3
기초재고량	75.68	74.98	77.26	77.69	3.6	0.6
생산량	420.41	430.19	431.98	433.23	0.7	0.3
미국	6.24	6.31	6.62	6.53	3.5	△1.4
태국	18.25	19.30	19.50	19.50	1.0	0.0
베트남	22.92	24.13	23.70	23.70	△1.8	0.0
인도네시아	35.30	35.50	36.25	36.25	2.1	0.0
중국	127.20	129.84	130.55	130.55	0.5	0.0
일본	7.79	7.93	8.00	8.00	0.9	0.0
수입량	27.81	25.61	26.31	26.53	3.6	0.8
인도네시아	2.00	0.50	0.80	0.80	60.0	0.0
중국	0.47	0.30	0.33	0.33	10.0	0.0
일본	0.68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21.10	427.48	428.88	430.38	0.7	0.3
미국	4.07	3.95	4.02	4.02	1.8	0.0
태국	9.78	9.60	9.50	9.50	△1.0	0.0
베트남	18.78	19.01	19.24	19.24	1.2	0.0
인도네시아	35.90	36.35	36.85	36.85	1.4	0.0
중국	127.20	127.34	127.65	127.65	0.2	0.0
일본	8.25	8.15	8.23	8.23	1.0	0.0
수출량	31.30	30.37	28.25	28.33	△6.7	0.3
미국	2.92	3.45	3.52	3.45	0.0	△2.0
태국	9.56	10.00	9.50	9.50	△5.0	0.0
베트남	4.52	4.75	5.20	5.20	9.5	0.0
기말재고량	74.98	77.69	80.36	80.54	3.7	0.2
미국	1.27	0.94	0.83	0.80	△14.9	△3.6
태국	2.51	2.22	2.73	2.73	23.0	0.0
베트남	1.39	2.16	1.72	1.72	△20.4	0.0
인도네시아	4.61	4.26	4.46	4.46	4.7	0.0
중국	35.92	37.72	39.85	39.85	5.6	0.0
일본	2.41	2.69	2.96	2.96	1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3.94	737.90	794.77	800.00	8.4	0.7
기초재고량	147.64	127.02	118.49	119.80	△5.7	1.1
생산량	596.30	610.88	676.28	680.20	11.3	0.6
미국	49.32	56.25	67.02	68.03	20.9	1.5
호주	10.82	13.04	22.00	21.50	64.9	△2.3
캐나다	25.27	20.05	25.40	27.30	36.2	7.5
EU27	124.87	119.29	147.19	147.17	23.4	0.0
중국	108.47	109.86	114.00	114.00	3.8	0.0
러시아	44.90	49.40	60.00	61.00	23.5	1.7
수입량	113.25	112.12	120.23	120.83	7.8	0.5
EU27	5.14	6.93	5.00	5.00	△27.8	0.0
브라질	7.62	7.00	7.00	7.00	0.0	0.0
북아프리카	16.30	21.67	20.30	20.20	△6.8	△0.5
파키스탄	0.07	1.49	2.00	2.00	34.2	0.0
인도	6.72	1.88	0.00	0.00	△100.0	#DIV/0!
러시아	0.86	0.34	0.40	0.40	17.6	0.0
소비량	616.93	618.10	654.88	655.58	6.1	0.1
미국	31.04	29.00	35.22	35.49	22.4	0.8
EU27	125.50	117.74	132.50	131.50	11.7	△0.8
중국	102.00	104.00	107.00	107.00	2.9	0.0
파키스탄	21.90	22.40	22.60	22.60	0.9	0.0
러시아	36.40	37.70	41.50	43.00	14.1	3.6
수출량	111.20	114.85	122.88	123.18	7.3	0.2
미국	24.73	34.40	27.22	27.22	△20.9	0.0
캐나다	19.43	16.12	17.50	18.50	14.8	5.7
EU27	13.87	12.23	18.00	18.00	47.2	0.0
기말재고량	127.02	119.80	139.89	144.41	20.5	3.2
미국	12.41	8.32	15.62	16.37	96.8	4.8
EU27	14.03	10.28	11.97	12.95	26.0	8.2
중국	38.46	41.53	46.56	46.56	12.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37.22	899.68	906.42	908.13	0.9	0.2
기초재고량	124.78	108.69	123.46	122.88	13.1	△0.5
생산량	712.44	790.99	782.96	785.25	△0.7	0.3
미국	267.60	332.09	306.65	309.89	△6.7	1.1
아르헨티나	22.50	20.50	19.00	19.00	△7.3	0.0
EU27	53.83	47.37	58.14	59.15	24.9	1.7
멕시코	22.35	22.65	24.00	24.00	6.0	0.0
동남아시아	16.81	18.69	18.30	18.30	△2.1	0.0
중국	151.60	151.83	156.00	156.00	2.7	0.0
수입량	90.92	95.87	83.23	81.33	△15.2	△2.3
이집트	4.83	4.20	4.30	4.30	2.4	0.0
EU27	7.06	13.50	3.00	2.50	△81.5	△16.7
일본	16.71	16.60	16.10	16.10	△3.0	0.0
멕시코	8.94	9.20	9.50	9.00	△2.2	△5.3
동남아시아	3.96	3.15	3.80	3.80	20.6	0.0
한국	8.74	9.10	7.70	7.70	△15.4	0.0
소비량	728.53	776.80	796.47	800.37	3.0	0.5
미국	230.77	262.56	270.40	271.41	3.4	0.4
EU27	62.30	62.00	61.00	61.00	△1.6	0.0
일본	16.50	16.50	16.10	16.10	△2.4	0.0
멕시코	30.70	32.00	33.00	32.50	1.6	△1.5
동남아시아	20.70	21.30	21.98	21.98	3.2	0.0
한국	8.83	9.10	7.80	7.80	△14.3	0.0
중국	145.00	149.00	158.00	158.00	6.0	0.0
수출량	93.80	95.77	86.07	83.87	△12.4	△2.6
미국	53.99	61.85	50.80	50.80	△17.9	0.0
아르헨티나	15.31	15.00	13.00	11.00	△26.7	△15.4
중국	5.27	0.60	0.50	0.50	△16.7	0.0
기말재고량	108.69	122.88	109.94	107.76	△12.3	△2.0
미국	33.11	41.26	25.86	29.31	△29.0	13.3
아르헨티나	1.66	0.16	0.96	0.66	312.5	△31.3
EU27	7.38	5.75	4.83	5.40	△6.1	11.8
중국	36.60	38.88	36.48	36.48	△6.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89.64	283.34	288.12	292.11	3.1	1.4
기초재고량	53.08	62.65	50.13	52.68	△15.9	5.1
생산량	236.56	220.69	237.99	239.43	8.5	0.6
미국	86.77	72.82	79.85	81.19	11.5	1.7
아르헨티나	48.80	46.50	50.50	50.50	8.6	0.0
브라질	59.00	61.00	62.50	62.50	2.5	0.0
중국	15.20	13.50	16.50	16.50	22.2	0.0
수입량	69.03	77.60	77.47	77.15	△0.6	△0.4
중국	28.73	36.50	36.00	36.00	△1.4	0.0
EU27	15.29	15.00	14.35	14.15	△5.7	△1.4
일본	4.09	4.05	4.05	4.05	0.0	0.0
소비량	224.52	229.12	236.76	235.19	2.6	△0.7
미국	53.24	51.56	53.05	52.40	1.6	△1.2
아르헨티나	35.09	36.42	39.04	38.54	5.8	△1.3
브라질	34.02	34.96	35.50	35.50	1.5	0.0
중국	45.40	48.85	51.57	51.57	5.6	0.0
EU27	16.09	15.78	14.99	14.74	△6.6	△1.7
일본	4.31	4.26	4.26	4.26	0.0	0.0
멕시코	3.93	3.74	3.74	3.74	0.0	0.0
수출량	71.50	79.14	77.60	78.84	△0.4	1.6
미국	30.39	31.57	27.22	28.58	△9.5	5.0
아르헨티나	9.56	13.50	13.90	14.10	4.4	1.4
브라질	23.49	25.38	27.50	27.00	6.4	△1.8
기말재고량	62.65	52.68	51.23	55.24	4.9	7.8
미국	15.62	5.58	3.67	5.98	7.2	62.9
아르헨티나	22.61	22.14	22.58	23.35	5.5	3.4
브라질	18.19	19.00	18.30	19.15	0.8	4.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6/07	2007/08 (추정)	2008/09(전망)		변동율(%)	
			2008.9	2008.10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9.83	164.15	169.20	168.17	2.4	△0.6
기초재고량	5.97	6.00	6.55	6.59	9.8	0.6
생산량	153.86	158.15	162.65	161.58	2.2	△0.7
미국	39.06	38.39	38.50	37.95	△1.1	△1.4
아르헨티나	26.06	27.30	29.44	29.05	6.4	△1.3
브라질	24.11	24.75	25.19	25.19	1.8	0.0
인도	5.28	6.39	6.31	6.31	△1.3	0.0
중국	28.09	30.69	32.60	32.60	6.2	0.0
수입량	52.57	55.14	55.74	55.51	0.7	△0.4
EU27	22.18	23.90	23.00	23.00	△3.8	0.0
중국	0.03	0.20	0.20	0.20	0.0	0.0
소비량	152.09	157.09	161.04	159.94	1.8	△0.7
미국	31.18	30.12	30.84	30.30	0.6	△1.8
아르헨티나	0.59	0.67	0.67	0.68	1.5	1.5
브라질	11.12	12.00	12.75	12.80	6.7	0.4
인도	2.02	1.54	1.63	1.63	5.8	0.0
EU27	33.19	34.89	33.54	33.34	△4.4	△0.6
중국	27.26	30.22	32.20	32.20	6.6	0.0
수출량	54.29	55.61	57.63	57.45	3.3	△0.3
미국	7.99	8.44	7.80	7.80	△7.6	0.0
아르헨티나	25.63	26.50	28.79	28.40	7.2	△1.4
브라질	12.72	12.11	12.80	12.80	5.7	0.0
인도	3.46	4.90	4.70	4.70	△4.1	0.0
기말재고량	6.00	6.59	6.26	6.30	△4.4	0.6
미국	0.31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52	1.65	1.63	1.62	△1.8	△0.6
브라질	1.91	2.72	2.38	2.49	△8.5	4.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63, October 10, 2008.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578	239,419	205,408	25,994	34,041	16.6
2007/08(E)	211,812	245,854	211,100	26,852	34,754	16.5
2008/09(P)	220,771	255,525	218,313	26,315	37,212	17.0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08. 10)*

김 현 중

지난 10월 17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쇠고기 및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쇠고기

세계 경기 침체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교역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환율 변동으로 국제 시장에서 미국 쇠고기의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위기로 경제사정과 환율이 악화되었으며 여름부터 미국 달러는 주요 쇠고기 교역국의 통화보다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세계 경기 침체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교역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2008년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2007년보다 23% 감소하였다. 수입량 감소의 주된 이유는 국내 공급 증가와 호주산 쇠고기 단가 상승 때문이다. 올해 암소 도축두수는 1997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그 결과 국내 가공육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쇠고기 수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수입 쇠고기의 상대 가격은 상승하였다. 이들 수출국은 새로운 신규 시장으로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2008년 미국 내 암소 도축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8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최근 가뭄의 여파로 감소한 비육우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고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08년 10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kim1025@krei.re.kr, 02-3299-4376)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할 물량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달러강세가 계속된다면 수입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간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의 쇠고기 총 수입은 2007년보다 18% 증가한 24억 9,300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수입량은 2008년보다 7% 증가한 26억 7,50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아시아 시장 수요 증가로 수출량 증가할 전망

달러화 약세로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8월 미국의 총 수출량은 2억 2,100만 파운드이고 2003년 광우병 발병 이후 한국 및 러시아 시장의 수출량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 달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이들 국가로의 수출량도 증가하였다. 8월 이후 이들 세 나라로의 쇠고기 수출은 25%, 총 수출량은 33%가 증가하였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여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국 시장에는 여름부터 달러화가 인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화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 쇠고기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 쇠고기 소비는 세계 경제 전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 캐나다, 멕시코, 기타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로 2008년 미국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한 18억 7,600만 파운드로 전망되며, 2009년은 아시아 시장의 수요 증가로 2008년보다 10% 증가한 20억 6,000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계속 감소할 듯

2008년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2007년보다 감소하였다. 8월 멕시코산 생우 수입 두수는 평년대비 82%가 감소하였으며, 2007년보다는 38%가 감소한 400,356두였다. 올 여름 멕시코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려 비육장 환경이 개선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생우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겨울에는 멕시코의 사육 환경이 열악하므로 9~12월에 미국으로 소를 들여보내는데 AMS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가을에는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8월 이후 캐나다에서 수입된 생우는 전년과 비교하여 38% 증가하였다. 이는 2007년 말부터 사료가격 상승과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캐나다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보다 생우를 수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올해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캐나다 달러는 미국달러에 대해 약세로 돌아섰으며 사료가격도 증가세를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캐나다 통계를 보면, 미국으로 보낼 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에서 수입된 도축용 암

아시아, 캐나다, 멕시코, 기타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로 2008년 미국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2007년보다 감소하였다. 지난 여름 멕시코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려 비육장 환경이 개선된 결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생우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 및 수소는 거의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는 작년 11월까지 는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지금은 수입비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생우 총 수입두수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250만 두, 2009년의 생우 수입두수는 올해보다 8% 감소한 230만두로 추정된다. 멕시코산 생우 수입은 과거 평균치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산 생우 수입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 악화와 도축 감소로 생우가격 하락

가뭄으로 사료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은 겨울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 겨울동안 비육우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재배 지역인 남서부, 북중부, 애팔래치아 북부 지역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가뭄으로 사료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은 겨울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에서 겨울동안 비육우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곡물 및 사료가격 상승으로 젖소 송아지 및 저체중 송아지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송아지 도축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체중으로 인한 도체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 도축은 연초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CWT¹⁾(Cooperate Working Togethe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젖소 암소 도축이 2008년 9월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젖소 및 비육우를 비롯한 캐나다산 암소 수입도 전체 암소도축 두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육업자들은 보다 체중이 무거운 송아지만 골라 비육을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000두 이상 사육 농가 중 800파운드 이상 고체중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는 2007년 8월에 31%에서 2008년 8월에 36%로 증가하였다. 반면 600파운드 이하의 저체중 송아지를 입식한 농가는 2007년 8월에 24%에서 2008년 8월에 18%로 감소하였다. ERS 비육우 사료급여 시스템²⁾에 따르면, 2008년 9월에는 100파운드당 10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결과 2007년 5월이 이윤이 발생한 마지막 달이었다.

일반적으로 도축은 10월에 최고조를 보인다. 이러한 계절적 영향으로 지난 몇 주 동안 거세우와 미경산우의 도축이 증가하였다. 거세우 도체중은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두당 4~8파운드가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가을과 겨울에 저체중 비육우가 미리 출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체중 송아지를 입식하는 경우 보통 단시간(110~120일) 비육 후 출하하기 때문에 시장 출하시점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따라서 고체중 송아지를 입식한 많은 농가에서 한꺼번에 비육우를 출하할 경우 가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 달간의 도매가격 하락으로 비육우 도축은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여름 중순부터 연말까지는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호텔 및 식당, 기타 대

1) CWT[Cooperatives Working Together] 낙농업 공동사업: 우유 생산업자들이 조직한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2) ERS High Plains Cattle Feeding Simulator : 대평원 서부 기준

량 소비처의 수요 감소와 돼지 및 닭고기와의 경쟁으로 중간 등급 쇠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낙농

미국의 젖소 사육두수는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평균 사육두수는 926만 5천두로 예상되며, 2009년에는 924만 5천두로 전망된다. 사료비는 높은 반면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소규모 농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봄 이후 곡물 가격이 하락 추세이고, 내년에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을 것이다. 사육두수는 감소하지만 2009년 원유 생산량은 1% 증가한 1,911억 파운드에 전망된다.

유제품 수출이 지난해와 올해의 유제품 수요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 달러화 강세, 유럽 유제품 가격의 하락,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난해 기쁨으로 야기된 원유 생산량 감소로부터 회복,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유제품 수요 감소 등은 내년 미국의 유제품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분유 제품의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버터 수출량 감소 폭은 다른 유제품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높은 소비자 가격과 경기 침체로 국내 유제품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올해 유제품 국내 소비는 2007년보다 1%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2009년에는 2008년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유제품 가격 하락 예상은 유제품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전망치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 2009년 전체 유제품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치즈 가격은 2008년에 파운드당 1.900~1.910달러, 2009년에는 파운드당 1.780~1.87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버터 가격은 2008년에 파운드당 1.450~1.480달러, 2009년에는 1.390~1.510달러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탈지분유 가격 또한 올해 파운드당 1.265~1.285달러에서 내년 1.070~1.14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장 가격은 올해 파운드당 25~26센트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다소 하락한 20.5~23.5센트로 전망된다.

유제품 가격 하락 예상은 이미 2008년 원유 가격 하락에 반영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원유 가격은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08년 원유 III등급 가격은 100파운드당 17.50~17.60달러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5.85~16.75달러로 하락할 전망이다. 원유 IV등급 가격은 2008년 100파운드당 15.10~15.30달러에서 2009년 12.95~13.95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로 평균 원유가격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평균 원유 가격은 100파운드당 18.40~18.50달러, 2009년에는 16.50~17.40달러로 전망된다.

미국의 2008년 평균 젖소 사육두수는 926만 5천두, 2009년에는 924만 5천두로 전망된다. 사료비는 높은 반면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3. 양돈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돼지가격은 2008년 평균 가격보다 7% 상승한 50~55달러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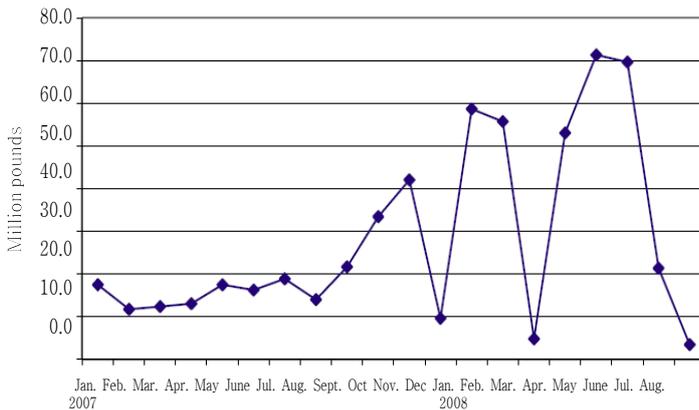
2009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 1일자 모돈 두수가 전년 동기보다 3% 감소하고 돼지 사육 농가들의 가을, 겨울 사육 의향도 1년 전보다 각각 5.5%, 2.9% 낮아졌기 때문이다. 양돈 수익성 악화에 따른 농가들의 사육의향 저하로 올해 모돈 도축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돼지 사육두수 감소와 내년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8월의 모돈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8.5% 증가하였다. 2009년 미국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6% 감소한 231억 파운드에 전망된다.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 산출한 올해 9월까지의 비육돈 수익은 사료비 상승으로 인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로 2009년 돼지 가격은 2008년 평균 가격보다 7% 상승한 50~55달러로 전망된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외 돼지고기 소비 둔화는 돼지 가격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분기 돼지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 높은 46~48달러로 전망되며, 4분기 돼지고기 생산량은 63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미국의 8월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56% 증가한 3억 7,700만 파운드였으며, 8월까지의 수출량은 33억 파운드로 전년 동월대비 69% 증가하였다. 8월 수출량 중에서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 러시아, 캐나다, 홍콩 순으로 많았다. 일본으로의 8월 수출량은 1년 전보다 33.6% 증가하였으며, 대 멕시코 수출량은 70.3%, 대 러시아 수출량은 190.5%, 대 캐나다 수출량은 6.4%, 대 홍콩 수출량은 143.4% 증가하였다. 반면, 대 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7년 8월보다 75.6%

감소하였다. 올해 8월까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 중에서 대 중국 수출량은 다섯 번째로 많았다.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올해 초부터 변동성이 매우 심해졌다. 중국 내 식품 가격 상승, 올림픽 개최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 수요에 대한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미 농무부는 2008년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량을 약 11억 파운드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8월까지 중국 돼지고기 수입량 중에서 미국산이 52%를 차지하였다. 2008년 미국의 돼지고기

그림 1 중국으로의 돼지고기 월별 수출 동향



자료: <http://www.ers.usda.gov/data/meattrade/>

수출량은 53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2008년보다 4.1% 감소한 51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8월 미국 돼지고기 수입량은 6,300만 파운드로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하였다. 미국에서는 주로 캐나다와 덴마크로부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캐나다산의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79%, 덴마크산은 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나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90%에 달하지만, 전년 동월대비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은 각각 22.7%, 28.4% 감소하였다.

캐나다로부터의 8월 돼지 수입 두수는 71만 4천두로 1년 전보다 18.7% 감소하였다. 특히 비육돈(도축 전 단계) 수입이 주로 감소하였다.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캐나다 육가공 공장의 개선, 자동 생산 감소, 미국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시행 예상 등이다.

4. 닭고기

8월 도계수수가 7.0% 감소하여(7억 4천 만수) 8월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 동월보다 3.2% 감소한 31억 파운드였다. 평균 생체중은 5.57파운드(2.6kg)로 전년보다 3.3% 증가하였다. 올해 1~8월 닭고기 생산량 증가의 원인은 평균 생체중이 5.57파운드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7월과 8월 닭고기 생산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증가하면서 2008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보다 3.2% 증가한 94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그러나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다소 감소한 92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생산성이 전년보다 호전되면서 생체 출하체중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지난 9월 13일~10월 11일까지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대비 4.2% 감소하였다. 사육 기간(대략 7, 8주)을 감안하면, 이 기간의 병아리 생산수수 감소는 4분기에 도계수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종란 입란실적 또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닭고기 생산량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3, 4분기말 닭고기 재고는 각각 7억 4천만 파운드, 7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8월말 냉동 닭고기 재고량은 7억 2천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15% 증가하였다. 미절단 냉동 재고는 가격 약세로 전년보다 67% 증가하였으며, 다리살 부분육(1/4 다리살, 복채, 넓적 다리살 등) 재고량 또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가슴살과 날개와 같은 브로일러 제품의 가격 하락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9월 북동부 시장의 뼈 없는 가슴살 가격은 파운드당 1.15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7% 하락한 43센트였으며, 날개 가격은 파운드당 95센트로 전년 동월대비 28% 하락한 37센트였다. 2008년 4분기 닭고기 생산

8월 도계수수가 7% 감소하여(7억 4천 만수) 8월 닭고기 생산량은 2007년 동월보다 3.2% 감소한 31억 파운드였다. 지난 9월 13일~10월 11일까지 병아리 생산수수는 2007년 동기대비 4.2% 감소하였다.

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격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가격 강세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계열업체(Integrator)는 닭고기 수요 감소라는 직접적인 영향과 닭고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용경색 문제에 직면해 있다.

8월 닭고기 수출량은 2007년보다 18% 이상 증가한 6억 4천만 파운드였다. 2008년 1~8월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한 45억 8천만 파운드였다. 주로 러시아, 멕시코로의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타국(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에 대한 수출 또한 증가하였다. 2008년 1~8월 닭고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한 23억 달러였다.

5. 계란

8월 계란(식란)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5억 4천만 판(12개들이)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3,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8월 계란(식란)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한 5억 4천만 판(12개들이)이었다. 2008년 1~8월 계란(식란)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한 42억 판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3,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산란용 마리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8월 뉴욕 계란 도매가격은 1.22달러(대란 12개들이)로 전년과 비슷하며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계란 가격은 최고 1.30달러에서 최저 1.05달러로 변동 폭이 심했다. 3분기 계란 가격은 1.15달러로 추정되며, 계절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4분기 계란 가격은 1.18~1.22달러로 예상된다.

1~8월 계란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7% 감소하였다. 이러한 계란 수출 감소의 원인은 주요 계란 수출 대상국인 멕시코, 홍콩 등으로의 수출 감소에 기인하며 캐나다의 경우 계란 수출이 증가한 유일한 국가이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LDP-171/Oct. 17, 2008>
발췌정리

표 1 U. 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26,421	6,371	6,897	6,915	6,520	26,703	6,305	6,835	26,650
- 돼지고기	21,943	6,023	5,593	5,630	6,285	23,531	5,915	5,475	23,145
- 양고기	183	46	43	41	43	173	44	45	172
- 닭고기	36,126	9,108	9,432	9,425	9,200	37,165	8,945	9,345	36,740
- 칠면조고기	5,958	1,541	1,565	1,575	1,575	6,256	1,505	1,530	6,105
- 전체 육류	91,264	23,258	23,712	23,767	23,799	94,536	22,884	23,395	93,484
- 계란, 백만판/12개	6,435	1,590	1,581	1,600	1,650	6,421	1,590	1,585	6,435
1인당 소비량, 파운드									
- 쇠고기	65.2	15.6	16.3	15.9	15.2	63.0	15.0	16.0	62.3
- 돼지고기	50.8	12.6	11.7	11.6	12.4	48.3	12.3	11.7	47.6
- 양고기	1.1	0.3	0.3	0.2	0.3	1.0	0.3	0.3	1.0
- 닭고기	85.4	21.2	21.4	21.4	21.1	85.0	20.6	21.4	84.2
- 칠면조고기	17.5	4.0	4.1	4.5	5.5	18.1	3.9	4.3	17.6
- 전체 육류	221.6	54.0	54.2	54.1	55.0	217.3	52.6	54.1	214.4
- 계란, 개수(백만더즌)	250.1	61.8	61.3	62.2	63.9	249.2	61.3	60.7	247.1
시장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Neb, \$/cwt)	91.82	89.59	92.82	98.45	93-95	93.97	94-102	94-102	94-102
- 비육필소(Ok City, \$/cwt)	108.23	99.88	106.60	110.81	100-112	105.82	106-114	110-116	108-116
- 유틸리티급정육(S.Falls, \$/cwt)	52.12	53.88	57.30	61.78	54-58	57.24	54-58	56-60	54-58
- 초이스급양고기(San Angelo, \$/cwt)	84.93	86.23	79.62	88.83	86-91	85.92	86-94	88-96	87-95
- 돼지고기(N. base, l.e. \$/cwt)	47.09	39.64	52.51	57.27	46-48	49.11	49-53	52-56	50-55
- 닭고기(12도시, cents/lb)	76.40	78.10	80.60	80.60	78-82	79.20	79-85	81-87	81-88
- 칠면조고기(동부, cents/lb)	82.10	77.4	88.90	94-98	94-98	89.70	80-86	87-95	89-96
- 계란(뉴욕, cents/doz)	114.4	158.8	117.30	114.50	118-122	127.70	121-129	116-126	118-128
교역량, 백만 파운드									
- 쇠고기 수출량	1,431	360	471	560	485	1,876	455	535	2,060
- 쇠고기 수입량	3,052	637	661	610	585	2,493	625	705	2,675
- 양고기 수입량	202	52	44	43	50	189	51	44	188
- 돼지고기 수출량	3,138	1,106	1,387	1,275	1,550	5,318	1,150	1,200	5,100
- 돼지고기 수입량	968	217	205	200	210	832	215	205	820
- 닭고기 수출량	5,771	1,507	1,787	1,750	1,630	6,674	1,525	1,575	6,275
- 칠면조 고기 수출량	553	148	160	160	160	628	145	155	635
- 모든 수입두수(천두)	10,005	2,915	2,149	2,050	1,950	9,064	1,950	1,950	7,80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구 분	2007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젖소 (천두)	9,158	9,249	9,274	9,280	9,265	9,267	9,260	9,250	9,240
두당 산유량 (파운드)	20,267	5,140	5,250	5,035	5,035	20,460	5,155	5,315	5,100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185.6	47.5	48.7	46.7	46.6	189.6	47.7	49.2	47.1
- 농가소모분	1.2	0.3	0.3	0.3	0.3	1.2	0.3	0.3	0.3
- 납유량	184.4	47.3	48.4	46.4	46.4	188.4	47.4	48.9	46.8
유지방 (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4	46.4	188.4	47.4	48.9	46.8
- 연초 재고량	9.5	10.4	12.1	13.6	11.6	10.4	9.5	11.0	12.8
- 수입량	4.6	1.0	0.7	0.7	1.0	3.4	0.9	0.8	0.8
- 총공급량	198.6	58.6	61.3	60.7	58.9	202.2	57.8	60.6	60.4
- 수출량	5.7	2.2	2.5	2.0	1.6	8.4	1.8	1.7	1.6
- 연말 재고량	10.4	12.1	13.6	11.6	9.5	9.5	11.0	12.8	11.1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2.5	44.2	45.1	47.2	47.8	184.3	45.1	46.1	47.6
전지방유 (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84.4	47.3	48.4	46.4	46.4	188.4	47.4	48.9	46.8
- 연초 재고량	9.1	9.9	10.1	10.6	10.0	9.9	10.0	10.0	11.3
- 수입량	4.4	1.0	0.8	0.7	0.8	3.3	0.8	0.8	0.9
- 총공급량	198.0	58.1	59.3	57.8	57.2	201.7	58.2	59.6	58.9
- 수출량	24.5	6.7	7.6	6.8	5.3	26.3	6.0	5.9	5.8
- 연말 재고량	9.9	10.1	10.6	10.0	10.0	10.0	10.0	11.3	10.8
- 소모분	0.0	0.0	0.0	0.0	0.6	0.6	0.0	0.0	0.0
- 집유량	163.6	41.4	41.1	41.0	41.3	164.8	42.3	42.4	42.4
우유가격 (달러/100 파운드) ¹⁾									
- 우유	19.13	19.23	18.57	18.60	17.30	18.40	16.70	16.15	16.20
					-17.70	-18.50	-17.40	-17.15	-17.20
- III 등급	18.04	18.12	18.40	17.28	16.24	17.50	15.84	15.81	15.92
					-16.64	17.60	-16.54	-16.81	-16.92
- IV 등급	18.36	15.04	15.25	16.23	14.03	15.10	12.94	12.54	12.76
					-14.53	-15.30	-13.74	-13.64	-13.86
유제품 가격 (달러/파운드) ²⁾									
- 체다 치즈	1.738	1.933	1.977	1.869	1.817	1.900	1.785	1.780	1.780
					-1.857	-1.910	-1.855	-1.880	-1.880
- 유장 분말	0.600	0.305	0.267	0.243	0.197	0.250	0.185	0.195	0.215
					-0.217	-0.260	-0.215	-0.225	-0.245
- 버터	1.344	1.230	1.411	1.575	1.615	1.450	1.480	1.365	1.355
					-1.685	-1.480	-1.580	-1.495	-1.485
- 탈지분유	1.708	1.364	1.300	1.334	1.080	1.265	1.020	1.035	1.065
					-1.120	-1.285	-1.080	-1.105	-1.135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07. 9	2008		
			7	8	9
비육우					
사육두수 /*	1,000 두	10,302	10,295	9,869	9,997
입식두수	1,000 두	2,361	1,621	2,012	2,230
출하두수	1,000 두	1,696	2,047	1,884	1,812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69,099	657,943	650,798	638,539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782,152	806,555	799,625	756,565
중계수수	1,000 수	55,940	55,984	55,184	54,395
6개월 미만 중계수수 /1	1,000 수	7,346	7,065	8,031	6,886
중계 도태수수 /2	1,000 수	5,529	7,887	7,446	7,300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30,861	32,814	31,883	28,390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4,073	26,551	24,337	22,694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24.7	540.3	537.2	523.4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1,936	278,718	277,080	278,225
산란율 /1	%	73.7	75.8	74.7	75.0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35,327	37,929	36,301	36,428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3,827	5,941	5,577	4,860

주: 1) /* 조사대상은 1,000 두 이상 사육농가임.
 2) /1 월초 기준임.
 3) /2 월말 추정량임.

표 5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2000=100

구 분	2007. 8월	2008		
		7월	8월	9월 /*
육계				
- 사료비	126.3	208.3	206.4	180.8
- 시장가격	120.3	126.0	118.4	114.0
- 이윤(가격-비용)	118.2	97.0	87.3	90.3
칠면조				
- 사료비	131.0	203.7	232.5	231.5
- 시장가격	144.2	146.7	151.0	148.8
- 이윤(가격-비용)	150.2	120.7	113.8	111.3
계란				
- 사료비	140.9	235.5	202.8	200.1
- 시장가격	144.8	146.5	158.8	147.9
- 이윤(가격-비용)	146.9	99.9	135.8	120.6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07년 1~10월	2008년 1~10월	200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22,130	22,536	2,263	2,373	2,269	2,270	2,356
- 송아지고기	117	118	12	12	11	13	13
- 돼지고기	17,923	19,394	1,762	1,853	1,804	1,974	2,147
- 양고기	152	146	13	14	13	14	15
적색육 전체	40,322	42,193	4,050	4,252	4,097	4,271	4,531
- 육계	30,206	31,313	3,078	3,225	3,081	3,170	3,298
- 기타 계육	419	474	49	51	49	42	51
- 칠면조육	4,969	5,270	524	548	508	498	610
백색육 전체	35,594	37,057	3,651	3,824	3,637	3,710	3,958
전체 육류 생산량	75,915	79,250	7,701	8,076	7,734	7,980	8,489
도축두수(천두)							
소	28,786	29,173	2,956	3,064	2,911	2,889	2,985
- 거세우	14,900	14,768	1,576	1,604	1,471	1,444	1,420
- 미경산우	8,673	8,652	833	874	850	849	910
- 경산우	2,632	3,023	309	316	300	308	350
- 젖소	2,108	2,197	184	212	230	228	245
- 비거세우	472	534	54	58	60	60	60
- 송아지	638	779	75	88	79	88	93
양	2,226	2,118	192	208	201	221	213
돼지	89,430	96,993	8,885	9,465	9,268	9,959	10,762
- 비육돈	86,285	83,992	8,540	9,114	8,939	9,675	10,397
- 모돈	2,763	2,714	308	308	289	308	323
육계	7,470,165	7,582,854	747,140	785,435	743,511	761,250	787,200
칠면조	221,060	227,921	22,867	24,199	22,662	21,950	26,300
구 분	2007. 10월	2008. 6월	7월	8월	9월	10월	
정육량(파운드)							
- 소	793	770	779	784	790	790	
- 송아지	170	157	141	143	146	148	
- 양	67	70	67	67	66	67	
- 돼지	202	199	196	195	199	199	
재고 입고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486.7	413.9	421.2	423.9	434.0	444.5	
- 돼지고기	484.9	567.3	517.2	491.4	486.6	507.3	
내장	17.1	87.4	74.4	58.0	31.9	21.4	
햄	162.7	119.1	117.1	131.2	141.6	160.5	
- 닭고기	654.9	755.1	768.8	738.9	755.4	760.5	
- 칠면조고기	504.9	522.4	562.7	620.7	629.2	613.6	
- 냉동달걀	17.7	12.4	16.1	21.1	20.8	21.8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07.10월	2008.6월	7월	8월	9월	10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1,300파운드급						
텍사스 팬핸들	92.87	96.14	98.58	99.07	98.94	92.40
네브라스카	91.69	95.55	98.83	99.14	97.37	91.40
- 암소(수폴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1,600파운드	57.20	64.31	64.90	65.75	62.69	54.00
유틸리티급 800~1,200파운드	53.20	58.13	63.35	63.00	59.00	52.00
- 비육필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550 파운드	120.67	119.95	120.58	128.88	119.11	111.25
2) 600~650 파운드	113.24	112.71	112.47	114.07	110.05	100.00
3) 750~800 파운드	111.26	109.74	110.85	112.78	108.79	99.05
미경산우						
1) 450~500 파운드	108.30	106.20	104.42	107.84	107.25	97.05
2) 700~750 파운드	106.00	102.48	105.56	108.68	102.60	92.2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52% 기준	41.96	54.71	56.48	62.56	52.76	47.30
- 모돈						
아이오와 #1-2, 300~400파운드	30.89	29.67	22.70	42.91	52.40	51.50

표 10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07.10월	2008.6월	7월	8월	9월	10월
곡물(\$/부셸)						
- 옥수수, #2 Yellow, Cen. III	3.28	N/A	N/A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셸)	8.64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260.56	N/A	N/A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37.00	172.00	177.00	180.00	176.00	N/A
- 건초, U.S. Avg.(\$/톤)	122.00	130.00	130.00	126.00	122.00	N/A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07. 8월	2008. 4월	5월	6월	7월	8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900 lb	144.09	159.10	167.33	162.31	159.56	151.40
셀렉트급 1-3, 600~900 lb	132.86	154.04	160.33	155.69	152.59	144.05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132.45	167.88	181.19	176.35	170.08	152.5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124.44	174.65	188.58	180.13	171.75	158.80
- 가족 및 내장	9.99	N/A	N/A	N/A	11.70	11.10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60.43	77.73	82.71	89.57	92.00	67.40
- 등심, 14-19 lb BI 1/4" trim	93.41	115.19	117.11	128.86	128.00	111.5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71.58	64.54	78.75	74.17	93.00	73.70
- 후지, 20-23 lb BI trmd. TS1	56.43	74.88	82.43	89.35	90.50	60.00
- 잡육, 72% fresh	47.87	63.78	75.03	94.74	103.00	51.6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70.60	82.48	84.60	79.34	77.98	77.10
- 조지아 독(Georgia dock)	78.50	83.87	86.77	86.88	86.50	85.90
- 북동부						
·뼈없는 가슴살	130.54	141.46	138.79	129.19	115.13	109.50
·뼈있는 가슴살	81.75	86.93	81.89	73.98	69.70	70.10
·다리(전체)	63.97	70.75	72.40	72.35	71.69	62.10
·다리(1/4도체)	44.84	49.53	53.63	55.45	55.11	51.9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105.88	112.01	101.23	107.04	116.08	108.10
- 뉴욕	113.77	124.86	105.41	112.00	119.10	119.40

표 10 옥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8월	217.63	3.17	137.0	142.7	144.7
2007년 9월	254.41	3.18	125.6	135.9	139.5
2007년 10월	260.55	3.21	126.3	120.3	118.2
2007년 11월	280.76	3.60	132.9	125.7	123.2
2007년 12월	314.78	4.01	134.4	121.9	117.5
2008년 1월	331.28	4.58	144.3	127.9	122.1
2008년 2월	345.88	4.87	156.9	132.6	124.0
2008년 3월	331.57	5.14	169.1	125.7	110.4
2008년 4월	329.94	5.58	176.4	120.8	101.2
2008년 5월	325.48	5.61	178.3	128.2	110.4
2008년 6월	370.92	6.56	185.2	126.7	106.1
2008년 7월	412.25	6.00	184.9	127.4	107.1
2008년 8월	355.35	5.04	208.3	126.0	97.0
2008년 9월	352.70	4.95	206.4	118.4	87.3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07년 8월	217.63	3.17	133.2	137.6	139.8
2007년 9월	254.41	3.18	134.7	166.8	183.6
2007년 10월	260.55	3.21	140.9	144.8	146.9
2007년 11월	280.76	3.60	142.6	188.8	212.9
2007년 12월	314.78	4.01	155.4	209.0	237.0
2008년 1월	331.28	4.58	171.0	205.2	223.1
2008년 2월	345.88	4.87	187.6	202.6	210.5
2008년 3월	331.57	5.14	197.1	212.0	219.8
2008년 4월	329.94	5.58	201.4	165.3	146.5
2008년 5월	325.48	5.61	211.9	129.2	85.9
2008년 6월	370.92	6.56	211.9	153.2	122.5
2008년 7월	412.25	6.00	242.5	138.5	84.1
2008년 8월	355.35	5.04	235.5	146.4	99.9
2008년 9월	352.70	4.95	202.8	158.8	135.8

세계 경제 전망 2008~2009*

권 오 복

세계 경제의 둔화는 2008년 하반기에도 계속되고 2009년 하반기 즈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3.9%, 2009년 2.8%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미국 및 기타 OECD 국가들의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경제국들의 경제는 빠른 성장세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전망이다.

1. 세계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지속될 듯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둔화는 2008년 상반기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둔화는 OECD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제의 정체와 신흥경제국들의 성장 둔화에 기인한다.

2007년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둔화는 2008년 상반기에도 계속되었다. 2008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전년 동기대비 1% 낮은 약 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둔화는 OECD 국가,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경제의 정체와 신흥경제국들의 성장둔화에 기인한다.

경제 둔화는 당초 예상보다 덜하지만 최근의 세계 경제 지표를 보면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OECD 국가에서는 소비 심리 위축과 제조업 생산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흥경제국에서도 경기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본 내용은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세계 금융 시장 여진이 불안정

미국 내 주택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미국 금융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다. 현재 세계 금융권에서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줄어들었으며 일부 은행에서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지만 재무사정은 압박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주식시장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세계 주식 시장은 침체되고 있다. 경제가 단기적으로 정체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가장 큰 퇴조는 금융 및 관련 사업 부문, 그리고 소비자 관련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세계 금융권에서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줄어들었으며, 일부 은행에서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지만 재무사정은 압박받고 있다.

표 1 세계주식시장 동향

구 분	주식시장 지수		
	52주간 최고치 ¹⁾	2008년 9월 중순	변동률(%)
OECD			
미국	14,198	10,918	-23.1
일본	17,489	12,215	-30.2
유럽	3,937	2,859	-27.4
호주	6,829	4,818	-29.4
동아시아			
중국	6,396	2,182	-65.9
한국	2,065	1,443	-30.1
대만	9,860	6,252	-36.6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830	1,870	-33.9
말레이시아	1,516	1,041	-31.3
필리핀	3,874	2,673	-31.0
싱가포르	3,831	2,487	-35.1
태국	915	647	-29.3
인도	20,873	14,324	-31.4

주: 1) 2007년 9월 중순부터 2008년 9월 중순까지 최고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높아 소비자물가가 상승국면에 있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문제가 불거진 2007년 7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이 70달러였던 것이 2008년 7월에는 145달러까지 치솟다가 2008년 9월 중순부터 100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높아 소비자물가가 상승국면에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식품과 연료가 소비자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흥 경제국에서 더 현저하다. 이들 신흥경제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고도성장을 이뤄 충격 흡수 능력이 감소하였다. 유럽연합,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수차례 이자율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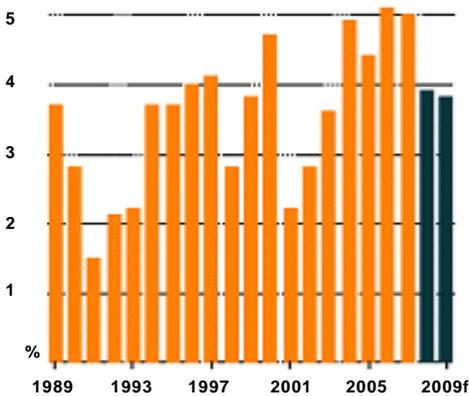
그러나 OECD 국가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향후 12개월간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경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겠지만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재정 금융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 감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는 최근 에너지 보조를 줄이기로 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세계 원유는 증산 여력이 크지 않아 공급 반응이 신속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은 늘 존재한다. 기술적, 지리적, 정치적인 제약 하에서 추가적인 원유 생산에 높은 투자비용이 수반되므로, 원유 생산이 완만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만연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원유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원유의 여유 생산능력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시장 상황도 수급에서 여유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정학적인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

이번 전망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007년의 5%에서 2008년에는 3.9%, 2009년에는 3.8%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계 경제는 2009년에 가셔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나머지 기간과 2009년에 세계 경제가 최근 몇 년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역사적인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1 세계 경제 성장 전망



OECD 국가들의 경제는 2009년에 회복하기 전에 다소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미국 경제의 정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서유럽과 일본 경제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경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며, 성장 동력은 연말 중에 분명해 질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흥경제국 경제는 고도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외부 수요는 약화될지 모르지만, 공공부문 지출과 같은 내수가 신흥경제국들의 단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세계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f	2009 f
경제 성장률					
OECD	%	3.1	2.7	1.3	0.9
미국	%	2.9	2.2	1.2	0.8
일본	%	2.4	2.1	1.0	0.9
서유럽	%	2.8	2.6	1.3	0.9
독일	%	2.9	2.5	1.8	1.1
프랑스	%	2.2	2.2	1.0	0.9
영국	%	2.9	3.1	1.1	0.8
한국	%	5.1	5.0	4.3	4.2
뉴질랜드	%	1.5	3.0	0.7	1.6
개발도상국	%	7.6	7.8	6.7	6.3
비OECD아시아	%	9.1	9.3	7.7	7.3
동남아시아	%	5.9	6.3	5.2	5.2
중국	%	11.6	11.9	10.0	9.3
인도	%	9.8	9.3	7.7	7.3
남미	%	5.5	5.6	4.5	3.6
러시아	%	7.4	8.1	7.5	6.8
동유럽	%	6.6	5.6	4.6	4.5
세계	%	5.1	5.0	3.9	3.8
미국 우량 금리	%	8.3	6.6	5.2	5.0
미 달러 환율					
대 엔화	엔	116	118	107	111
대 유로화	유로	0.79	0.73	0.68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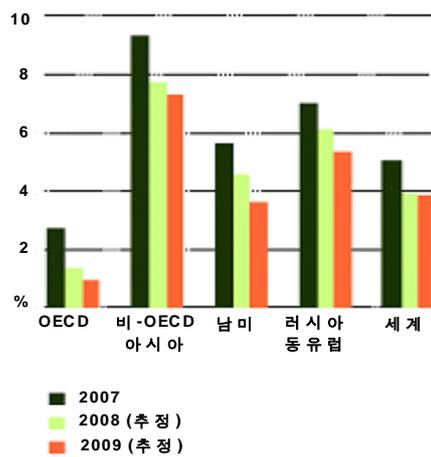
자료: ABARE, IMF, OECD

세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위험

현재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적 위험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지만 기업 투자에 대한 여신을 연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의 경제 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것이다. 동시에 세계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정책의 폭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금융 부문의 조정 기간은 자국 내 주식 시장의 안정화에 달려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이 회복되면 소비자들의 자신감과 지출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저축이 원유 소비자로부터의 생산자에게 이전되어, 세계적인 불균형이 증가해 왔다. 2007년 경상수지 적자국이 5년 전에 비해 증가했

그림 2 주요 지역별 경제 성장 전망



고, 국내총생산대비 적자폭의 크기도 확대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갑작스런 자본 흐름의 변화가 환율과 이자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고유가가 미국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 경제의 침체를 가져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이룬 경상수지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에서 원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무역수지는 국내총생산의 3%로서 2006년 4.5%보다 낮은 수준이다. 만일 최근의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화된다면,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수요가 현재 가정하는 것보다 더 활발할 수 있다.

식료품 가격 상승

지난 몇 년간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식량안보와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OECD국가와 신흥경제국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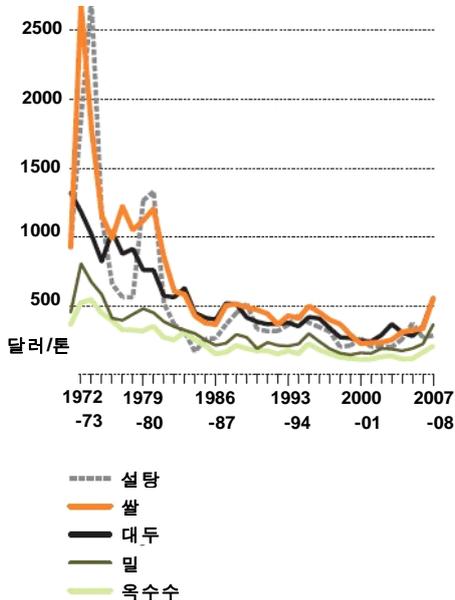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곡물, 채유용종실, 축산물 등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예를 들면 밀의 세계 가격이 2006년 중순 이래 74% 정도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옥수수, 콩, 주요 낙농제품(치즈, 버터, 탈지분유) 가격은 70%에서 140% 가량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식량안보와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 농산물 가격은 1970년대 중반 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농산물의 세계 가격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후, 다시 세계 각국의 화폐로 환산된다. 미국 달러화와 주요국의 화폐가 명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화폐로 표시된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상승률보다 낮다.

현재에도 1970년대에 제기된 식량안보와 자원 가용성에 대한 관심이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가격이 오른 농산물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였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식품 수요가 매우 높고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연료 형태의 공업적 수요도 생겨났다. 동시에 농업인들은 토지에 대해 도시, 공업, 환경적인 용도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 수자원 부족과 기후 변화는 농업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 세계 식량 생산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R&D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량 증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만이 세계 식량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세계 농산물 가격 추이



2. 주요국의 경제 전망

미국

2008년 2/4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의 1.9%보다 높은 3.3% 성장하였다. 이처럼 미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은 높은 소비 지출과 수출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효과는 주택 및 기타 민간투자 지출의 감소로 다소 상쇄되었다.

미국 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지만, 최근 공개된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2008년 나머지 기간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노동 시장 조건이 취약해졌고 주식시장이 상당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경색적인 신용조건, 주택부문의 지속적인 정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 온 소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6% 상승해 과거 17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에 이른다. 향후 미국 경제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제 유가와 다른 상품 가격의 하락세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전망은 미국 경제가 2008년 1.2% 성장하고, 2009년에는 0.8%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09년도의 성장률 감소는 주로 하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 및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기업투자와 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방적인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공급과 같은 활발한 정책대응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은 점도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경제 전망 하에서 미국의 금융정책은 단기적으로 수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는 2008년 9월 초 2%로서 전년도 같은 시기의 5.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난 수년간 고도성장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2008년 상반기에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2008년 2/4분기 중국의 실질 GDP는 10.1% 성장하여 전년 동기 10.6% 및 2007년의 11.9% 수준보다 다소 낮았다.

중국경제는 쓰촨성 지진과 중국 남부 지역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008년 2/4분기 중국의 수출도 전년대비 21.9% 증가에 머물러, 2007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25.7%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노동시장 조건이 취약해졌고, 주식시장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상반기에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2/4분기 중국의 실질 GDP는 10.1% 성장하여 전년 동기보다 다소 낮았다.

2008년 2/4분기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3.3%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은 14.7% 증가하여 중국 국내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경상 기준) 전년 동기대비 26.3% 높은 수준이었다. 식료품 가격은 소폭 상승하여 2008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4.9% 상승하였다. 2008년 2월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8.7%로 정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08년 중국의 경제는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은 2008년보다 다소 낮은 9.3% 수준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 요인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국제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정,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외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내수가 활기를 띌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적 금융적 지원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08년 9월 중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한 바 있다.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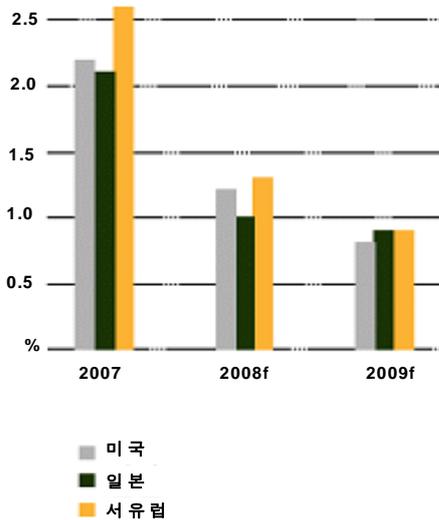
일본 경제는 2009년 1/4분기에 3.2%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레 2/4분기에는 2.4% 성장에 그쳐 성장세가 주춤했다. 2008년 일본 경제활동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수출과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2008년 나머지 기간 동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8년 상반기의 생산 원가의 상승과 이윤 감소에 따라 기업부문의 자신감이 줄어들고, 일본의 제조업 생산과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둔화에 따라 일본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본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신흥경제국들이 일본의 주요 수출시장인 반면 미국과 서유럽 시장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수출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것이다.

2007년에 2.1%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2008년에는 1%, 2009년에는 0.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OECD 경제 성장



서유럽

2008년 상반기 서유럽 경제는 2007년 상반기 성장률 2.6%보다 낮은 1.5% 성장에 그쳤다.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고유가가 실질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뚜렷하게 위축되었다. 유로화의 강세와 수출의 부진은 서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 둔화 정도가 유럽 전역에서 같은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와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들의 경제 사정은 추세보다 낫다. 이들 국가의 경제사정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유럽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과 대조적이다. 프랑스 경제의 경우, 2008년 2/4분기에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약간 높은 1.4%를 기록하였으며, 이탈리아 경제는 전년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근 유럽의 시장은 미국의 경제 둔화가 유럽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유럽의 경우, 국제 유가의 강세와 주식 시장의 침체가 투자 및 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경제와 미국 경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아시아, 유럽 및 중동의 신흥경제국과의 무역이 증대하여 유럽의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이 작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무역연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금융 부분의 연계는 최근 미국 금융 시장의 여파가 유럽에 전달되게 한 주요 요인이다.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노출로 인해 유럽의 수많은 상업은행과 신용 시장이 위축되었다. 그 결과, 신용 조건에서 여유가 없어지고, 유럽 경제 성장에 하방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역내 수요에도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강세로 인해 2008년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3.8% 상승하였다. 2009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완만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여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유럽 경제는 2008년 1.3%, 2009년에는 0.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OECD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

최근 금융 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최근 경기 후퇴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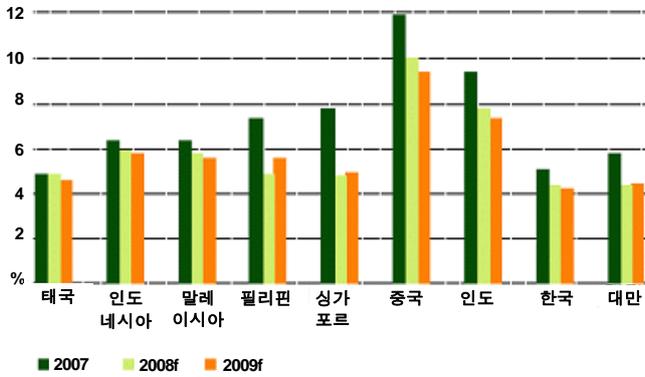
인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고도성장에 이어 둔화조짐을 보인다. 인도 경제는 2008년 2/4분기에 전분기의 8.8% 성장에 이어 7.9%의 성장을 보였다. 인프라 지출이 경제 확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지난 몇 달간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인도의 도매물가는 전년대비 12%

2008년 상반기 서유럽 경제는 2007년 상반기 성장률 2.6%보다 낮은 1.5% 성장에 그쳤다. 유로화의 강세와 수출의 부진은 서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경기 후퇴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5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 전망



나 상승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인도의 중앙은행은 2008년 6월 이래 세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이자율이 과거 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7.3%로 나타났다.

기타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불안정한 국제 금융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들 국가들의 미국 수출은 감소했지만, 지역 내 무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럽과 역내 국가

에서의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과 국제 유가의 강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압력 때문에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 경제는 2007년에 9.3% 성장했으며, 2008년 7.7%, 2009년에는 7.3%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호주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 편이나,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2008년 2/4분기 호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분기 0.7%보다 낮은 0.3% 상승에 그쳤다. 2007~08년 전체적으로 호주 경제는 3.7% 성장하였다. 이는 2006~07년 경제성장률인 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호주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호주 국내 수요 중에서도 특히 가계소비의 감소에 있다. 최근 발표된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호주 국내 수요가 계속해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초에 3.9%였던 실업률이 2008년 8월에는 4.1%로 늘어났다. 2008년 상반기 소매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4분기 호주의 무역 수지는 5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전분기 73억 달러의 적자와 대비된다. 1/4분기와 2/4분 경상수지는 각각 198억 달러,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호주 상품에 대한 해외 수출은 계속해서 강세를 띠어, 호주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앞으로 호주의 국내 수요는 둔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요인 속에서 2008~09년 호주 경제는 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조건이 평년 수준일 경우, 2008~09년 농산물 생산은 10.5%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경종작물 생산을 2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축산물 생산은 1.4% 감소할 전망이다. 2008~09년 광물 생산은 6.8%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호주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 편인데 최근 들어 성장세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호주 경제 성장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가계소비의 감소에 있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제한된 공급 능력으로 인해 호주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1/4분기와 2/4분기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3%, 1.5% 상승하였다. 호주의 국내 수요가 완만하다고 가정할 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2008~09년 전체적으로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3.5% 수준으로 전년의 3.4%보다 0.1%p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는 2008년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2008년 중순부터 약세로 돌아섰다. 호주 달러는 2008년 7월 중순에는 미국 달러대비 98센트, 2008년 9월 중순에는 80센트에 거래되었다. 2008~09년 3개월간(7~9월) 미국 달러 대비 호주달러는 90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호주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로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08년 7월 중순 0.63유로에서 2008년 9월 중순에는 0.70유로로 상승하였다. 2008년 2/4분기 이래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 등 세계의 주요 경제권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띠었다.

호주 달러 약세의 또 다른 요인은 호주 금융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이다. 2008년 9월초,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기준 금리를 25% 인하하였다. 호주와 다른 나라간의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호주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호주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리라는 기대 속에 호주의 우량 대출 금리는 2007~08년 7.7%에서 2008~09년 7.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6월경 미국의 우량 대출 금리는 5%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간 금리차가 많이 좁혀졌다. 2008~09년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85센트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Marina Kim and Jammie Pen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3, September Quarter 2008.

그림 6 호주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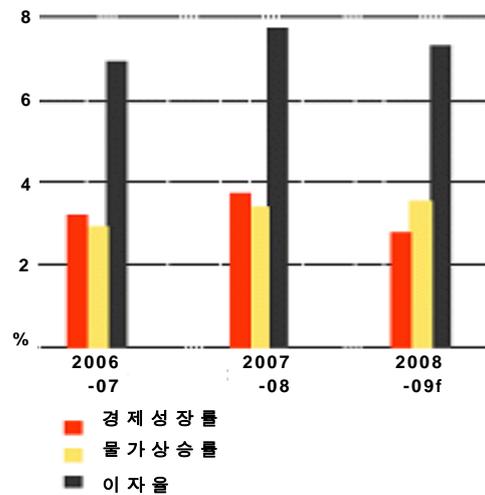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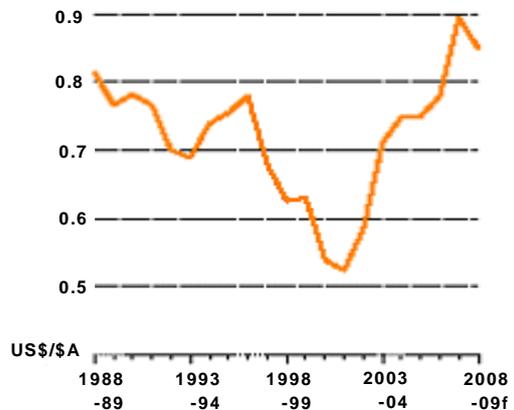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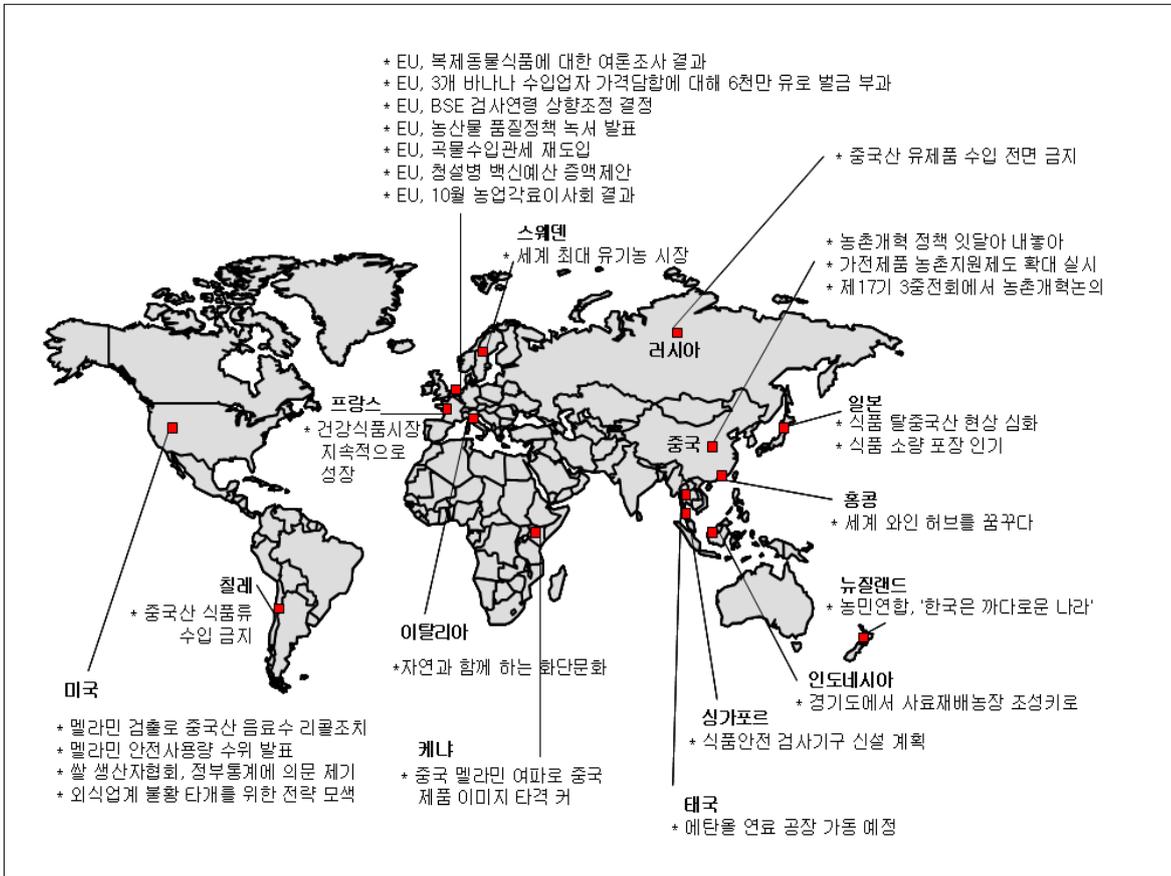
그림 7 미국-호주의 환율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08.10)

세계 농업 브리핑 (2008.10)*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일본, 식품 탈중국산 현상 심화

- 오염된 냉동교자와 멜라민 유제품에 이어 중국산 냉동 콩에서 대량의 농약이 검출됨. 10.15일 후생노동성은 도쿄 하치오지 시내의 수퍼에서 판매된 중국산 냉동 콩에서 기준치를 최대 3만 4,500배 상회하는 고농도 유기인계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 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함. 이러한 일련의 식품오염문제로 시장에서 중국산 식자재가 급격히 퇴출되고 있으며, 중국산 대신 가격이 비싼 일본산 점유율이 높아짐.

- 규슈 세관에 의하면 8월 규슈·오키나와의 중국 식료품의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33% 감소함. 후쿠오카 시장 관계자도 50%가 넘었던 중국산 야채 점유율이 올해는 15~20%로 떨어졌다고 함. 백화점 이와타야(후쿠오카시)는 작년까지 중국산 송이버섯을 취급했으나, 올해는 북미산 송이를 대신 판매함.

○ **일본, 식품 소량 포장 인기**

- 작년부터 맥도날드의 메가 버거로 시작된 특대 사이즈 붐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메가 붐은 줄어들고 소용량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작년부터 계속된 식품가격 인상 속에서 몇몇 업체는 가격 인상 없이 중량 변경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소량화가 진행되는 품목이 있음.
- 일본은 전통적으로 소량 포장을 선호했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1가구당 사람 수가 줄어들고 식품 가격 상승으로 낭비를 없애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량의 식품 수요가 더욱 늘고 있음. 게다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쇼핑도 가까운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거운 물건은 되도록 구입하지 않으려고 함.

○ **중국, 농촌개혁 정책 잇달아 내놓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10.20일,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에 따라 농민의 생산과 수입을 증대하고 식량과 농업생산 촉진을 위한 ‘강농혜농’ 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함. 총 6개 분야의 조치로 구성된 이번 발표는 각각 ▷농산품 매입 강화 ▷식량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식량재배농민에 대한 보조강화 ▷화학비료시장의 조정메커니즘 개선 ▷돼지 생산 및 낙농업 발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증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이번 식량가격 상향조정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 증대 정책은 농민의 수입 증대를 효과적으로 촉진해,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를 다소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중국, 가전제품 농촌지원제도 확대 실시**

- 재정부와 상무부는 최근 ‘가전 농촌진출 확대 추진 방안에 관한 통지’를 2008.10.13일에 공식 발표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가전 수출 감소, 도시 시장의 포화 때문에 내수를 진작하고 신농촌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신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산둥, 허난, 쓰촨 3개 성에서의 시범 시행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네이멍구, 랴오닝 등 14개 성시로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함. 이 정책의 수혜를 입는 농촌 인구는 3억 9,200만 명으로 전 농촌인구의 53.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농민들이 입찰된 가전제품을 구매시 정부는 수출시 증치세 환급율에 준해 농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보조금은 구매한 가전제품 판매가격의 13%로 중앙 재정부에서 80%, 성급 재정부에서 20%를 부담한다고 규정함.

○ **중국, 제17기 3중 전회에서 농촌토지제도, 농촌금융체계에 대해 논의**

- 10.9~10.12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기 3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의 농촌개혁발전 추진문제관련결정’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농촌개혁의 발전방향을 확립하기로 함. 중국 개혁 개방 30년 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3중 전회를 맞이하여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를 비롯한 간부들이 중국 각 지방으로 현지시찰조사 사업을 진행했음.
- 1. 농촌토지제도 개혁 :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토지의 집체소유권을 보장하는 기초하에 가정을 단위로 한 도급경영방식에서 점차 개인을 대상으로 토지를 도급시킬 것임.
- 2. 농촌금융체계 논의 : 3중전회에서는 농촌의 금융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중국 농업발전 은행개혁문제와 전국 농촌 신용사 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됨. 베이징대학교 농촌금융연구소 왕수광 소장에 따르면, 농촌개혁은 농촌의 요소시장을 점차 개방시키는 것으로 농촌의 토지·자금·노동력시장을 점차 체계화시켜야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함.

○ **홍콩, 세계 와인 어브를 꿈꾸다**

- 유럽과 미국의 와인 소비가 주춤하는 사이 아시아의 와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세계 와인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2007년 아시아 와인 소비규모는 70억 달러로 전 세계 와인 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 와인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①아시아 경제 발전 호조, ②성장하고 있는 중산층, ③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 ④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조 때문임.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가 와인의 소비를 장려하고 곡물주를 지양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홍콩은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기타 국가로의 접근이 용이해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와인 거래상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임. 기존 런던을 경유해 아시아 시장으로 진입하던 와인의 유통과정은 비용, 시간

그리고 와인의 보존에 있어 비효율적이었으나, 홍콩으로 직접 와인을 공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홍콩은 경쟁적인 가격과 유동성, 와인 프로모션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와인을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음. 아시아 와인 허브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보다 겨울에 출기 때문에 와인보관에 유리하며, 자칫 부패하기 쉬운 와인 유통에도 효과적임.

○ **싱가포르 정부, 식품안전 검사기구 신설 계획**

- 싱가포르의 농식품·수의국(AVA : The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은 산하기관으로 법의학기관(forensic unit)을 신설하여 식품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자는 계획을 발표함. 10.1일에 AVA Lab을 방문한 국가개발장관 Mah Bow Tan이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으며 AVA는 멜라민 유제품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하기로 함.

○ **태국, 에탄올 연료 공장 가동 예정**

- 최근 국제적인 유가 상승으로 태국에서도 석유 대체재로서 에탄올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 태국에서 처음으로 섬유소로부터 에탄올을 만드는 공장이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임. 이 공장은 일본의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서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한해 40만ℓ의 에탄올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받았음. 에탄올은 당밀과 사탕수수 찌꺼기 두 종류의 재료로 만들게 되는데, 당밀을 통한 생산이 사탕수수 찌꺼기를 통한 생산보다 많음.

○ **경기도, 인도네시아에 사료재배농장 조성키로**

- 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남동부 슬라웨시주에 1만 6천ha 규모의 옥수수 재배농장을 조성키로 결정함. 인도네시아 국유지에 만들어지는 사료농장은 올해부터 4년간 매년 4천ha씩 조성됨. 조성공사 및 옥수수재배는 축협 등이 참여하는 경기지역 컨소시엄과 농장부지를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설립할 국제합작회사가 담당하게 됨. 재배기술은 도 농업기술원이 담당하게 되며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량 경기지역 축산농가에 공급됨. 도는 올해 현지에서 시범재배를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옥수수를 재배, 국내에 들여올 계획임.

○ **뉴질랜드 농민연합, '한국은 까다로운 나라'**

- 뉴질랜드 농민들은 한국 보건 당국이 멜라민이 검출된 뉴질랜드산 유제품에

대해 수입 중단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이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 뉴질랜드 농민연합의 라클란 맥켄지 대변인은 뉴질랜드의 검사절차는 세계 일류 수준이라며 뉴질랜드 식품안전국(NZFS)이 검사를 실시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 우유단백질인 '락토페린'을 수출해 온 뉴질랜드의 타투아 낙농협동조합은 9.29일 자사 제품에서 소량의 멜라민이 검출된 뒤 수출 중단조치를 내림. 그러나 뉴질랜드 식품안전국은 발견된 양이 극히 작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금지조치를 내릴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2. 유럽

○ 복제동물식품에 대한 EU 여론조사 결과

- 2008.10.9일 EU 집행위원회는 EU 국민들이 복제동물식품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EU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함. EU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복제동물의 식품사용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언제 동물복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 58%는 복제동물의 식품생산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답변한 반면, 41%는 동물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변함. 38%의 국민은 동물복제가 위생,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이익이 있더라도 식품생산을 위해 복제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고 있음.

○ EU, 3개 바나나 수입업자 가격담합에 대해 6천만 유로 벌금 부과

- EU 집행위원회(경쟁총국)는 2008.10.15일에 미국의 Chiquita사, Dole사 및 독일 Weichert(Del Monte)사 등 3개 바나나 수입업자의 가격 카르텔(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총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동 3개 회사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8개 국가의 바나나 수입시장을 주도하면서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가격을 담합한 적이 있으며, 지난 2005.4월 Chiquita사가 동 담합사실을 EU집행위원회(경쟁총국)에 자진신고 함으로써 담합사실이 경쟁총국에 적발됨. EU 집행위원회는 최초 자진신고한 Chiquita사에 대해서는 EU의 자진신고 감면규정에 따라 당초 벌금 산정액 83.2백만 유로 전액을 면제해 준 반면, Dole사에 대해서는 45.6백만유로, Weichert사에 대해서는 14.7백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함.

○ EU, BSE 검사연령 상향조정 결정

- 2008.10.14일 EU 회원국들은 EU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서 구 EU 회원국(EU 15)의 소 BSE 검사연령을 완화하지는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함.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집행위원회 제안은 집행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2009.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는 BSE 검사연령에 대한 EU 식품검역청의 과학적 검토의견을 토대로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구 EU 회원국에 대해 건강하거나 위험이 있는 소를 막론하고 BSE 검사연령을 48개월령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함. ① 최소 6년 이상 동물성 단백질 사료금지 조치 시행 ② 최소 6년간 광범위한 BSE 검사 시행 ③ 6년간 추적성 및 동물개별인식 시스템 시행 ④ 회원국간에 BSE 관련 만족할 만한 상황 유지

○ EU, 농산물 품질정책 녹색¹⁾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08.10.15일 농산물 품질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고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절차를 개시함. 세계화의 진전, 저가 농산물 수입의 증가, 소비자의 요구 증대에 직면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 농업의 강점을 품질(quality)로 규정하고 EU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농산물 품질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EU에서는 지리적 표시(GI), 유기농식품을 비롯하여 수백가지의 정부, 민간 품질인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품질인증 라벨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EU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EU산, 비 EU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지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 청설병 백신예산 증액제안

- 2008.10.29일에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도 청설병 예방백신 지원예산을 당초 60백만 유로에서 1억 유로를 증액한 160백만 유로로 수정·제안하였다고 발표함. 동 예산은 회원국들이 청설병을 예방하는 백신을 구입하거나 청설병을 유발하는 벌레를 예찰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예산임.
- 집행위원회의 예산수정제안은 2008.10.24일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유형의 청설병 바이러스(serotype 6)가 발견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1) 녹색(green paper) : EU 집행위원회에서 특정주제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토의 문서로 관련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구상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녹색 발표 이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정책 제안이 뒤따름.

발견되었기 때문임. 네덜란드와 EU 보건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청설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축장 행을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동물의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음.

○ **EU, 10월 EU 농업각료이사회 결과**

- 10월 EU 농업각료이사회가 10.27~28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어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 불법벌채 목재제품 EU 반입금지법안에 대해 논의함.
- 1.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CAP Health Check) : 9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의장국인 프랑스 농무장관, 피셔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 개별 회원국 등 3자협의 방식으로 내부협의를 갖고 11월까지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법안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2. 불법벌채 금지법안 :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집행위원회의 불법벌채 목재의 사용 및 유통금지법안의 내용에 대해 환영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행정적인 부담이 과중하다고 우려를 나타냄.

○ **EU, 곡물수입관세 재도입**

-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2008.10.17일 세계 곡물가격 급등으로 일시 유예했던 곡물수입관세를 금주 중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EU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곡물가격 상승 및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곡물수입관세를 내년 6월까지 일시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 시행한 바 있음. 금년 하반기 들어 곡물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국제 곡물시장 가격도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신규 EU 가입국에서 곡물수입관세 재도입을 주장함. 곡물관세 재도입 규정은 금주 중 EU 집행위원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며 동 규정이 EU 관보에 게재되면 3일 후 시행됨.

○ **프랑스, 건강식품시장 지속적으로 성장**

- 프랑스 시장조사그룹(XERFI)의 PRECEPTA사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건강식품 시장은 2007년 80억 유로로 전년대비 10% 성장했으며, 2012년에는 100억 유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프랑스 국립식품산업조합(ANIA)에 의하면, 2007년도 프랑스의 식료품 시장은 1,540억 유로로 전년대비 7% 증가해 건강식품시장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프랑스 건강식품시장은 건강기능성 식품(49%), 바이오 식품(26%), 보조식품(14%), 다이어트 식품(8%), 공정무역 유기농식료품(3%)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건강식품시장은 많은 대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사노피-아방티스 그룹은 이 분야를 가장 유망한 다변화 중심 축으로 선정해, 호주시장의 리더인 심비온사를 인수했음. 식료품 제조업체들도 점차적으로 기능성 식료품 및 바이오 식료품 분야에 뛰어 들고 있음.

○ 이탈리아, 자연과 함께 사는 와단문화

- 이탈리아의 동네 곳곳에 위치한 바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닌 지역 구성원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랑방 같은 곳임. 바 문화와 함께 이탈리아인들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단문화임. 이탈리아인들은 가정 내 베란다에 조그마한 화단을 꾸미기를 좋아하며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직접 토마토, 허브 등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 최근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개념을 한데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vivaio bar(정원 바)로 불리우는 신개념 공간은 시 외곽에서 식물원, 농장, 정원을 갖춘 형태로 운영되며 고객들은 정원관리, 채소재배와 관련한 노하우를 화훼 전문가들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음. 고객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방문해, 넓은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농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화훼기법 등을 배워 자신의 가정 내 단지를 가꾸고 있음.

○ 스웨덴, 세계 최대 유기농 시장

- EU 집행위원회의 소비자 구매성향 조사에 따르면, EU 국가들 중 스웨덴이 유기농 식품 시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스웨덴인의 42%가 유기농 식품을 구매한다고 조사되어 다른 EU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남. 주로 고소득자들에게만 유기농 시장이 한정적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스웨덴은 대체적으로 고른 판매 동향을 보여줌.
- 스웨덴 소비 연구소가 대형 슈퍼체인 COOP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초 3개월간 유기농 제품의 판매증가율은 43%를 기록하면서 유기농 제품 소비량이 단기간에 가장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임을 보여줌. EU의 유기농 제품 생산 및 판매 위원회는 전 EU 국가를 대상으로 28종류의 유기농 제품의 가격을 조사했으며, 스웨덴 유기농 제품의 가격이 최저거나 모두 EU 평균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중국산 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 러시아는 9.30일부로 우유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중국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음.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 멜라민 우유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 사고와 중국으로부터의 공식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극단적인 조치'라고 밝힘. 이번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식품은 우유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이 포함됨.

3. 아메리카

○ 미국, 멜라민 검출된 중국산 음료수에 대해 리콜 조치

- 미국에서 판매중인 제품에서 또 멜라민이 검출되어 리콜조치에 들어감.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은 10.6일 중국산 과일맛 음료수 '블루 캣 플레이버 드링크(Blue Cat Flavor Drink Lanmao)'에서 멜라민이 나와 긴급 회수에 나섬. 블루 캣은 중국 브랜드로 뉴저지 소재 트라이스타 푸드(Tristar Food)사가 수입·배급하여 미국 전역의 아시안 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음. FDA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유통업체에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신속히 수거할 것을 권유함. 이에 앞서 FDA는 '미스터 브라운' 인스턴트 커피믹스와 캔커피 등 7개 제품과 '화이트 래빗 크림 캔디'를 전량 회수한 바 있음.

○ 미국, 멜라민 안전사용량 수위 발표

- 미국 식약청이 멜라민 분유파동과 관련해 안전사용량 수위를 발표함. 유아용 분유는 어떤 수위의 함유량도 안전하지 않으며, 분유 이외의 다른 식품은 멜라민 함유량이 2.5ppm 이하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발표함.

○ 미국, 쌀 생산자협회가 정부 생산통계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

- 미국 농무부(USDA)가 발표하는 작물 생산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협회 회원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의문이 증폭되자 미국 쌀생산자협회(U.S. Rice Producers Association)는 쌀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쌀생산 추정통계를 발표함. 동 보고서의 가장 주된 관심은 USDA가 발표한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수확량과 생산량에 대한 추정 전망'에 관한 것임.
- USDA는 2008년 미국의 쌀 생산을 204백만 cwt(약 9,253천톤)으로 전망하였음. 그러나 금년에 발생한 수차례의 허리케인, 비정상적인 저온, 초봄에

내린 비, 늦은 파종 등으로 역사적인 통계를 근거로 한 수치와 실제 작황 및 수확 전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쌀 생산자들에게 이러한 통계치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수취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다양한 주정부 농업기술센터(Extension Service)직원들과 연계한 광범위한 조사를 거친 후 발표한 올해 쌀 생산 전망은 정부 보고서의 수치보다 무려 34백만 cwt(약 1,536천톤)가 적은 170백만 cwt(약 7,717천톤)였음.

○ 미국, 외식업계 불황 타개를 위한 전략 모색

- Food Marketing Institute에서 최근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71%의 소비자가 외식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조사 결과는 최근 침체된 경기가 중산층의 식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줌. 실제로 2008년 현재까지 미국 내 대표적 캐주얼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 30곳 중 3곳만이 이익을 내고 있음. 미국 최대 패밀리 레스토랑인 Bennigan's와 Steak & Ale 체인은 올 여름 연방파산법 7조에 따른 파산으로 수백 개의 점포를 폐쇄함.
- 외식업계는 불황 타개를 위해 새로운 인테리어 장식, '적당한 양에 적당한 가격(right portion, right price)' 슬로건으로 가격 인하, 특별 영역을 선점할 수 있는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이 밖에 회원카드, 쿠폰발급, 사은품 증정, 가족손님을 위한 유아놀이방 마련 등의 고객 유치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칠레, 중국산 식품류 수입 금지

- 최근 발표된 중국산 유해식품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칠레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조치를 단행했음. 칠레 보건부에서는 현재 유통중인 분유 및 우유에 중국산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전면 회수했으며, 기타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할 것임을 선언함.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 및 할인매장들도 중국산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회수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칠레인들은 의류·가정제품·부속품 등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식품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임. 이번 멜라민 건은 작년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장난감 문제 이후 연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 아프리카

○ 케냐, 중국 멜라민 여파로 중국제품 이미지 타격 커

- 케냐는 중국의 멜라민 파동이 발표된지 이틀만에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중국

분유제품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케냐의 주요 일간지들은 계속해서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연일 보도함. 특히, 최근 국제입찰로 구매한 중국산 군용트럭이 전복되면서 12명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민감하게 다루면서 케냐 국방부가 이에 대한 군부차원의 조사팀을 결성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거래된 중국산 군용 제품에 대해 품질 재검토 및 국방부 입찰 관행까지 재고하려는 분위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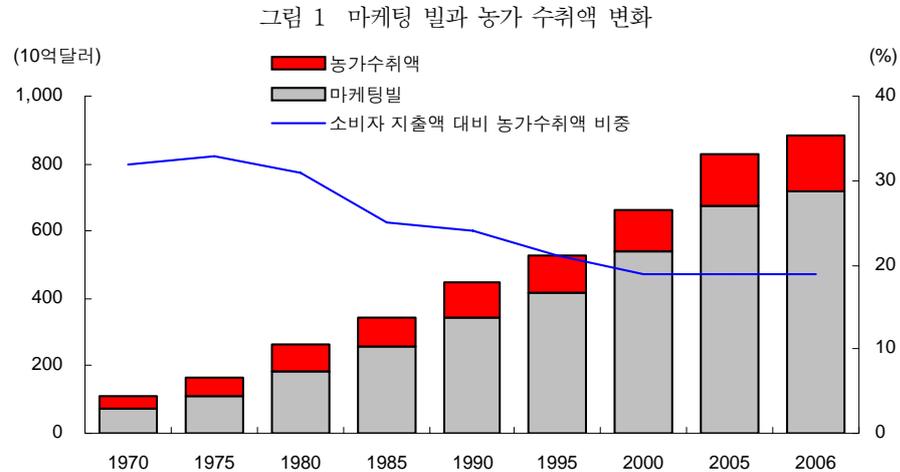
- 이러한 파장은 케냐뿐만 아니라 인근국인 탄자니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탄자니아도 기존에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34톤의 중국산 분유를 압류 조치했으며, 동아프리카 주간지인 The East African지는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부룬디, 가봉, 가나, 토고 등이 중국산 분유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도했음.

세계농업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세계 닭고기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이번 달에는 미국 농무부(USDA) 경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마케팅 빌(Marketing Bill)에 관한 내용을 그래프로 담았다. 마케팅 빌은 국내 농가에서 생산한 식품 원자재(raw food inputs)를 식품으로 가공하고 소비자에게 유통·판매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추정한 값이다. 마케팅 빌은 매년 소비자들이 국내 농식품에 지출하는 금액에서 농가수취액(farm value)의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소비자 지출액은 소매점 및 외식업체에서 지출한 금액과 학교·병원 등 기관의 지출을 포함하고, 수산물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가수취액은 해당연도 농가수취가격과 생산량을 곱해 구하며, 비식용 부산물(가죽, 내장 등)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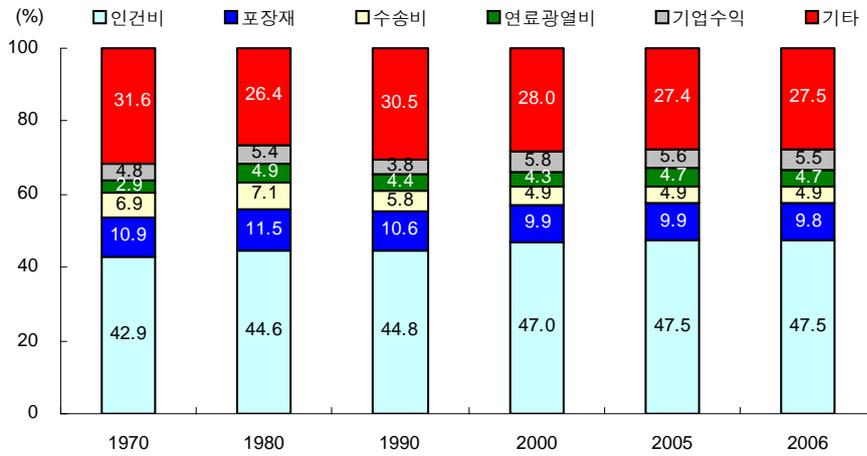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FarmToConsumer/marketingbill.htm>)

농가수취액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농식품에 상응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농가 판매 시점에서 평가한 금액이다. 농가수취 몫(farm share)은 소비자 지출액 대비 농가수취액 비중이다. 마케팅 빌은 1970년 750억 달러에서 2006년 7,10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농가수취 몫은 1970년 32%에서 2006년 19%로 감소하였다.

마케팅 빌 구성요소¹⁾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은 1970년 42.9%에서 2006년에는 47.5%로 증가하였다. 반면 운송비 비중은 1970년 6.9%에서 2006년 4.9%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포장재 비중도 10.9%에서 9.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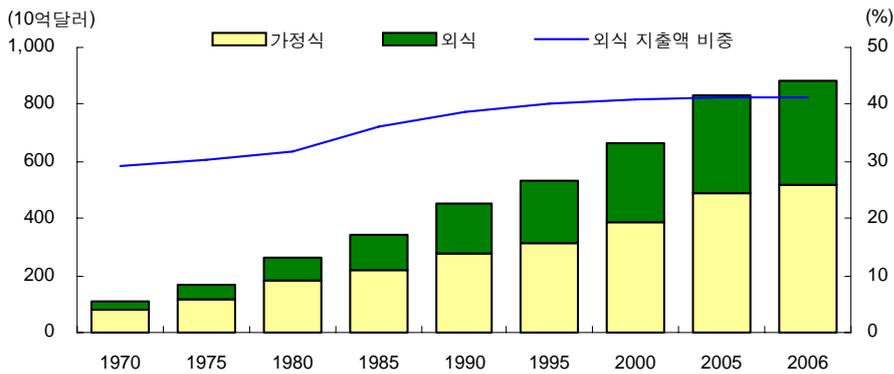
1) 미국에서는 인건비, 포장재 비용, 운송비, 연료 및 전력비용, 기업수익(세전), 광고, 감가상각, 순 이자, 순 지대, 수리비용, 사업관련 세금, 기타 비용 등 11개 항목으로 마케팅 빌을 조사한다.

그림 2 마케팅 빌의 구성요소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FarmToConsumer/marketingbill.htm>)

그림 3 외식 지출액 비중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소(<http://www.ers.usda.gov/Data/FarmToConsumer/marketingbill.htm>)

소비자 지출액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9%에서 2006년 42%로 증가하였다. 외식에서 사용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품에 비해 더 많은 가공을 한다. 따라서 외식이나 가공식품 구매가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마케팅 서비스 비용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농가 수취액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작성자: 유찬희, 조민지

세계 닭고기 통계

표 1 한국의 국가별 닭고기 수입액 및 수입량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0	미국	41,766,142	18.9	53,908,382	32.2
	태국	18,983,480	80.5	11,111,669	102.7
	중국	3,090,128	19457.8	1,868,090	7821.3
	싱가포르	519,599	0.0	153,565	0.0
	캐나다	243,639	127.0	334,076	76.6
	덴마크	84,890	0.0	106,387	0.0
	호주	15,949	-23.7	24,855	211.5
	프랑스	12,986	-66.5	736	-68.1
	합계	64,716,813	41.0	67,507,760	45.0
2001	태국	46,956,425	147.4	30,096,569	170.9
	미국	43,723,279	4.7	48,872,390	-9.3
	중국	5,634,601	82.3	3,655,576	95.7
	덴마크	389,246	358.5	339,601	219.2
	캐나다	163,163	-33.0	198,950	-40.4
	싱가포르	148,510	-71.4	48,213	-68.6
	대만	93,486	0.0	41,788	0.0
	일본	40,434	0.0	28,677	0.0
	프랑스	37,100	185.7	25,493	3363.7
	영국	17,952	0.0	21,773	0.0
	키르기스스탄	17,343	0.0	23,596	0.0
	베트남	16,038	0.0	22,045	0.0
	이탈리아	1,238	0.0	240	0.0
	안도라	630	0.0	189	0.0
	홍콩	171	0.0	4	0.0
	합계	97,239,616	50.3	83,375,104	23.5
	2002	미국	51,831,912	18.5	61,590,840
태국		47,608,702	1.4	30,473,462	1.3
중국		875,348	-84.5	553,918	-84.8
싱가포르		531,527	257.9	171,420	255.5
덴마크		518,865	33.3	410,744	20.9
캐나다		454,897	178.8	564,727	183.9
독일		54,156	0.0	47,938	0.0
프랑스		29,610	-20.2	24,675	-3.2
일본		15,880	-60.7	3,452	-88.0
이탈리아		4,783	286.3	960	300.0
스웨덴		6	0.0	2	0.0
합계		101,925,686	4.8	93,842,138	12.6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3	태국	61,226,488	28.6	43,944,688	44.2
	미국	31,720,416	-38.8	43,706,041	-29.0
	중국	1,599,344	82.7	870,245	57.1
	덴마크	207,862	-59.9	166,440	-59.5
	베트남	71,688	0.0	17,664	0.0
	캐나다	48,760	-89.3	97,520	-82.7
	타지키스탄	40,800	0.0	24,000	0.0
	싱가포르	24,320	-95.4	8,894	-94.8
	일본	8,686	-45.3	96	-97.2
	프랑스	3,045	-89.7	1,220	-95.1
	합계	94,951,409	-6.8	88,836,808	-5.3
2004	덴마크	29,178,061	13937.2	15,274,313	9077.1
	태국	15,828,063	-74.1	8,534,831	-80.6
	프랑스	4,185,735	137362.6	2,749,517	225270.2
	미국	3,870,575	-87.8	3,998,568	-90.9
	중국	1,502,338	-6.1	778,782	-10.5
	영국	560,409	0.0	376,050	0.0
	일본	198,818	2188.9	66,264	68925.0
	독일	126,267	0.0	67,050	0.0
	호주	12,246	0.0	2,880	0.0
	스페인	2,742	0.0	614	0.0
	합계	55,465,254	-41.6	31,848,869	-64.1
2005	덴마크	41,239,191	41.3	20,345,535	33.2
	미국	30,599,900	690.6	20,651,097	416.5
	중국	18,547,760	1134.6	7,164,637	820.0
	태국	12,600,507	-20.4	4,869,632	-42.9
	영국	4,161,509	642.6	2,282,017	506.8
	프랑스	3,036,965	-27.4	1,845,350	-32.9
	브라질	2,430,029	0.0	1,140,013	0.0
	독일	287,924	128.0	130,550	94.7
	호주	86,222	604.1	48,506	1584.2
	일본	25,039	-87.4	2,654	-96.0
	캐나다	22,020	0.0	22,680	0.0
	합계	113,037,066	103.8	58,502,671	83.7

년도	국가	국가별 금액		국가별 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성장률(%)	물량 (kg)	전년대비성장률(%)
2006	미국	37,328,639	22.0	40,482,125	96.0
	중국	33,112,403	78.5	11,484,222	60.3
	브라질	31,070,187	1178.6	15,846,894	1290.1
	태국	9,774,819	-22.4	3,265,736	-32.9
	덴마크	6,458,694	-84.3	4,087,783	-79.9
	프랑스	390,301	-87.1	255,600	-86.1
	캐나다	98,635	347.9	118,011	420.3
	독일	38,595	-86.6	23,824	-81.8
	네덜란드	18,322	0.0	9,396	0.0
	호주	14,801	-82.8	1,596	-96.7
	일본	296	-98.8	4	-99.8
	합계	118,305,692	4.7	75,575,191	29.2
2007	브라질	44,301,572	42.6	22,582,954	42.5
	중국	36,257,517	9.5	11,888,800	3.5
	미국	23,495,182	-37.1	19,921,101	-50.8
	태국	12,246,943	25.3	3,958,801	21.2
	덴마크	3,187,906	-50.6	1,637,440	-59.9
	일본	65,888	22159.5	17,835	445775.0
	호주	19,545	32.1	23,411	1366.9
	합계	119,574,553	1.1	60,030,342	-20.6
2008	미국	42,706,821	177.6	27,788,857	95.6
	브라질	39,598,916	20.2	16,539,573	-3.6
	중국	20,430,399	-24.4	5,662,470	-37.8
	태국	14,544,881	69.3	4,268,191	52.0
	덴마크	4,742,230	114.1	2,185,664	105.1
	일본	42,940	548.3	7,738	826.7
	호주	3,938	-74.4	317	-98.6
	합계	122,070,125	41.7	56,452,810	27.3

주: 닭고기는 AG코드 22201임. 2008년은 9월까지의 합임
전년대비성장률은 수입이 있었던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수출입통계 <http://www.kati.net/>

표 2 세계 각국 닭고기 수급 통계 (2007년)

국가	총 공급량 Total Supply			수출량 Total Exports		
	1000 MT	비율 %	순위	1000 MT	비율 %	순위
가나	80	0.11	37	-	-	26
가봉	37	0.05	45	-	-	26
과테말라	217	0.29	29	-	-	26
그루지야	71	0.09	39	-	-	26
남아프리카공화국	1,243	1.64	11	2	0.03	20
대만	626	0.83	22	3	0.04	19
러시아	2,625	3.46	6	2	0.03	20
마케도니아	37	0.05	45	-	-	26
말레이시아	966	1.27	15	1	0.01	23
멕시코	3,076	4.06	5	9	0.12	14
몰도바	80	0.11	37	1	0.01	23
미국	16,571	21.86	1	2,678	36.53	2
바레인	32	0.04	48	-	-	26
베냉	63	0.08	40	-	-	26
베네수엘라	903	1.19	17	-	-	26
베트남	504	0.66	25	-	-	26
브라질	10,306	13.60	3	2,922	39.86	1
사우디아라비아	1,029	1.36	14	10	0.14	13
싱가포르	175	0.23	32	15	0.20	12
아랍에미리트	274	0.36	26	30	0.41	10
아르헨티나	1,285	1.70	10	95	1.30	7
아이티	31	0.04	49	-	-	26
아제르바이잔	91	0.12	36	-	-	26
앙골라	147	0.19	35	-	-	26
예멘	208	0.27	30	-	-	26

표 2 세계 각국 닭고기 수급 통계 (2007년)

수입량 Total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Country
1000 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69	0.99	20	86.25	7	Ghana
33	0.47	36	89.19	3	Gabon
57	0.82	22	26.27	27	Guatemala
55	0.79	24	77.46	14	Georgia, Republic of
238	3.41	7	19.15	30	South Africa, Republic of
56	0.80	23	8.95	35	Taiwan
1,222	17.52	1	46.55	20	Russian Federation
32	0.46	37	86.49	6	Macedonia, Republic of
35	0.50	34	3.62	40	Malaysia
393	5.64	6	12.78	32	Mexico
47	0.67	28	58.75	19	Moldova, Republic of
28	0.40	38	0.17	45	United States
27	0.39	40	84.38	10	Bahrain
46	0.66	29	73.02	15	Benin
163	2.34	11	18.05	31	Venezuela
160	2.29	12	31.75	26	Vietnam
1	0.01	46	0.01	47	Brazil
470	6.74	5	45.68	22	Saudi Arabia
114	1.63	18	65.14	17	Singapore
238	3.41	7	86.86	5	United Arab Emirates
5	0.07	45	0.39	44	Argentina
22	0.32	42	70.97	16	Haiti
42	0.60	31	46.15	21	Azerbaijan, Republic of
138	1.98	15	93.88	1	Angola
88	1.26	19	42.31	23	Yemen

국가	총공급량 Total Supply			수출량 Total Exports		
	1000 MT	비율%	순위	1000 MT	비율%	순위
오만	55	0.07	43	-	-	26
오스트레일리아	729	0.96	19	25	0.34	11
요르단	167	0.22	33	-	-	26
우크라이나	615	0.81	23	6	0.08	15
유럽연합27	8,890	11.73	4	625	8.53	3
이라크	272	0.36	27	-	-	26
이란	1,466	1.93	9	2	0.03	20
인도	2,240	2.96	7	1	0.01	23
인도네시아	833	1.10	18	-	-	26
일본	2,068	2.73	8	6	0.08	15
중국	11,836	15.62	2	358	4.88	4
칠레	572	0.75	24	34	0.46	9
카자흐스탄	58	0.08	42	-	-	26
카타르	54	0.07	44	-	-	26
캐나다	1,160	1.53	12	139	1.90	6
콜롬비아	947	1.25	16	-	-	26
콩고	33	0.04	47	-	-	26
콩고민주공화국	61	0.08	41	-	-	26
쿠바	157	0.21	34	-	-	26
쿠웨이트	187	0.25	31	60	0.82	8
태국	1,141	1.51	13	296	4.04	5
필리핀	690	0.91	20	5	0.07	18
한국	630	0.83	21	6	0.08	15
홍콩	252	0.33	28	-	-	26
전세계	75,790	100.00		7,331	100.00	

수입량 Total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Country
1000 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49	0.70	26	89.09	4	Oman
1	0.01	46	0.14	46	Australia
34	0.49	35	20.36	29	Jordan
140	2.01	14	22.76	28	Ukraine
640	9.18	3	7.20	37	EU-27
175	2.51	10	64.34	18	Iraq
43	0.62	30	2.93	41	Iran
-	-	48	-	48	India
9	0.13	44	1.08	43	Indonesia
696	9.98	2	33.66	25	Japan
482	6.91	4	4.07	39	China, Peoples Republic of
42	0.60	31	7.34	36	Chile
23	0.33	41	39.66	24	Kazakhstan, Republic of
49	0.70	26	90.74	2	Qatar
126	1.81	16	10.86	33	Canada
22	0.32	42	2.32	42	Colombia
28	0.40	38	84.85	9	Congo (Brazzaville)
50	0.72	25	81.97	11	Congo, Democratic Rep of the
126	1.81	16	80.25	12	Cuba
145	2.08	13	77.54	13	Kuwait
-	-	48	-	48	Thailand
40	0.57	33	5.80	38	Philippines
60	0.86	21	9.52	34	Korea, Republic of
215	3.08	9	85.32	8	Hong Kong
6,974	100.00		9.20		World

국가	생산량 Production			총국내소비량 Total Dom. Consumption		
	1000 MT	비율 %	순위	1000 MT	비율 %	순위
가나	11	0.02	40	80	0.12	37
가봉	4	0.01	49	37	0.05	45
과테말라	160	0.23	26	217	0.32	29
그루지야	16	0.02	39	71	0.10	39
남아프리카공화국	1,005	1.47	13	1,241	1.83	10
대만	570	0.84	20	623	0.92	22
러시아	1,350	1.98	8	2,581	3.80	6
마케도니아	5	0.01	45	37	0.05	45
말레이시아	931	1.37	14	965	1.42	14
멕시코	2,683	3.94	5	3,067	4.52	5
몰도바	33	0.05	35	79	0.12	38
미국	16,211	23.78	1	13,567	19.98	1
바레인	5	0.01	45	32	0.05	48
베냉	17	0.02	38	63	0.09	40
베네수엘라	740	1.09	17	903	1.33	16
베트남	344	0.50	25	504	0.74	25
브라질	10,305	15.12	3	7,384	10.87	4
사우디아라비아	559	0.82	22	1,019	1.50	12
싱가포르	58	0.09	30	156	0.23	33
아랍에미리트	36	0.05	33	244	0.36	28
아르헨티나	1,280	1.88	9	1,190	1.75	11
아이티	9	0.01	42	31	0.05	49
아제르바이잔	49	0.07	31	91	0.13	36
앙골라	9	0.01	42	147	0.22	34
예멘	120	0.18	28	208	0.31	30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총 국내소비량)		Country
1000 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	-	7	-	7	Ghana
-	-	7	-	7	Gabon
-	-	7	-	7	Guatemala
-	-	7	-	7	Georgia, Republic of
-	-	7	-	7	South Africa, Republic of
-	-	7	-	7	Taiwan
42	7.64	3	1.63	6	Russian Federation
-	-	7	-	7	Macedonia, Republic of
-	-	7	-	7	Malaysia
-	-	7	-	7	Mexico
-	-	7	-	7	Moldova, Republic of
326	59.27	1	2.40	5	United States
-	-	7	-	7	Bahrain
-	-	7	-	7	Benin
-	-	7	-	7	Venezuela
-	-	7	-	7	Vietnam
-	-	7	-	7	Brazil
-	-	7	-	7	Saudi Arabia
4	0.73	6	2.56	4	Singapore
-	-	7	-	7	United Arab Emirates
-	-	7	-	7	Argentina
-	-	7	-	7	Haiti
-	-	7	-	7	Azerbaijan, Republic of
-	-	7	-	7	Angola
-	-	7	-	7	Yemen

국가	생산량 Production			총국내소비량 Total Dom. Consumption		
	1000 MT	비율 %	순위	1000 MT	비율 %	순위
오만	6	0.01	44	55	0.08	43
오스트레일리아	728	1.07	18	704	1.04	19
요르단	133	0.20	27	167	0.25	31
우크라이나	475	0.70	24	609	0.90	23
유럽연합27	8,250	12.10	4	8,265	12.17	3
이라크	97	0.14	29	272	0.40	26
이란	1,423	2.09	7	1,464	2.16	9
인도	2,240	3.29	6	2,239	3.30	7
인도네시아	824	1.21	16	833	1.23	17
일본	1,250	1.83	10	1,945	2.86	8
중국	11,354	16.65	2	11,478	16.90	2
칠레	530	0.78	23	538	0.79	24
카자흐스탄	35	0.05	34	58	0.09	42
카타르	5	0.01	45	54	0.08	44
캐나다	1,006	1.48	12	984	1.45	13
콜롬비아	925	1.36	15	947	1.39	15
콩고	5	0.01	45	33	0.05	47
콩고민주공화국	11	0.02	40	61	0.09	41
쿠바	31	0.05	36	157	0.23	32
쿠웨이트	42	0.06	32	127	0.19	35
태국	1,050	1.54	11	821	1.21	18
필리핀	650	0.95	19	685	1.01	20
한국	570	0.84	20	624	0.92	21
홍콩	26	0.04	37	252	0.37	27
전세계	68,176	100.00		67,909	100.00	

주: 닭고기는 Poultry, Meat, Broiler를 의미함.
 자료: <http://www.fas.usda.gov/psdonline/>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총 국내소비량)		Country
1000 MT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	-	7	-	7	Oman
-	-	7	-	7	Australia
-	-	7	-	7	Jordan
-	-	7	-	7	Ukraine
-	-	7	-	7	EU-27
-	-	7	-	7	Iraq
-	-	7	-	7	Iran
-	-	7	-	7	India
-	-	7	-	7	Indonesia
117	21.27	2	6.02	1	Japan
-	-	7	-	7	China, Peoples Republic of
-	-	7	-	7	Chile
-	-	7	-	7	Kazakhstan, Republic of
-	-	7	-	7	Qatar
37	6.73	4	3.76	2	Canada
-	-	7	-	7	Colombia
-	-	7	-	7	Congo (Brazzaville)
-	-	7	-	7	Congo, Democratic Rep of the
-	-	7	-	7	Cuba
-	-	7	-	7	Kuwait
24	4.36	5	2.92	3	Thailand
-	-	7	-	7	Philippines
-	-	7	-	7	Korea, Republic of
-	-	7	-	7	Hong Kong
550	100.00		0.81		World

M45-98 세계농업 제98호 (2008. 10)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8년 10월

발 행 2008년 10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